

# 해양마케팅 의 마도로스 大衆歌謠에 대한 歷史的考察

<造船·海運을 中心으로>

朴命圭\*

A Study on The Historical Story of The Joint Matelot popular song of ocean marketing

Park Myung Kyu

## Abstract

The Matelot popularization of Ballad song consisting marine transportation and shipbuilding are subject to struggle for existence due to change of ocean environment.

Due to this struggle for sea life, the sound of the sea remembering from the popular folk song may reach out of target on the sea glory.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Matelot sea life and to make a prayer corresponding change of a point altration for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a historical event, fact, figure.

The purpose of this paper explained the Matelot of popular an old song re-sung of confusion, reconstruction, growth, jump, weakness.

The change of the Matelot popular folk song despair and resoution is explained crow's nest by considering the coupling from struggle for the Matelot sea chantey.

## 1. 들머리에(Prefece)

대중가요란 한 세대, 한 시기에 생겨나서 대중들에게 불려지다가 사라지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대중가요들의 우연성과 필연성에 따른 사회적 배경에 따라 노래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때 그 시절 유행가를 만든 분들이 오래토록 사랑을 받는 것은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사회에 대한 공헌이며 우리는 창조적 활동에 큰 혜택을 본셈이다.

광복이후 50여 년간 대중가요는 도르트에서, 록, 댄스, 힙합으로 꾸준히 변형발전 해왔고 수많은 가수들이 명멸했고 그 만큼 히트곡들이 나왔다. 1900(광무4년)에서 해방이전까지 가요는 일제시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곧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곡들이 쏟아졌으나 기쁨도 잠시, 38선이 그어지면서 가수들은 분단의 아픔을 그린 노래를 시작했지만 또 다른 한국전쟁은 애국의 노래를 만들었다.

미군과 함께 들어온 미국문화의 영향으로 미 8군출신 가수들이 등장하고 미국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었던 대학졸업자들이 가요계에 등장한다. 60년대 도르트가 나왔고, 70년대는 통기타로 대변되는 포크가 가요계를 휩쓸면서 청년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 하였지만, 포크송 열풍은 75년 대마초 사건과 함께 크게 수그러들고 애창곡들은 별 이유 없이 금지곡 리스트에 머물렀다.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 공학부 조선전공 교수

이 격동기시기에 국내적으로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발표, 1965년 한일수교정상화, 1969년 수출자유지역조성,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1년 새마을 운동, 1974년 중동건설 진출, 1977년 수출 일 백억 달러 달성과 함께 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바다관련 노래가 전체 대중가요의 20%정도 발표되었고 마도로스 제목의 가요는 3%정도이다. 이 글은 수산업 관련 노래를 제외하고 조선해운에 관련된 대중가요 100년사를 살펴서 그때 그 시절의 해양 특징을 규명해 봄으로써 바다관련 산업의 준비단계로 21세기 마케팅 광고 매체개발에 목적을 두고 쓴 것이다.

## 2.초창기(Infancy)

개항 이후의 수상 교통은 강운(江運)에서 해운(海運) 위주로 발전하였다.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 것은 자본주의 제국의 상품 수입과 원료 강탈을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수상 교통은 내륙 수로의 연결에서 해운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거 쇄국주의를 고집하고 있던 우리나라에는 해외 무역이 억제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해운에 필요한 선박과 기선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이 시절 1880년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이양선(異樣船)에서 프랑스 신부가 평양감사에게 소리나는 토키머신을 선보였고 또한 1886년 충남아산의 해미 현감이 유태인 오프펠트가 물고은 상선에 초대되어 영국의 스코트가 개량한 연통식 레코드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같은해 일본 쓰시마섬 영주인 무쓰(陸奧宗光 : 덕해옹주의 시집)가 미국에서 구입한 납관식실린더 축음기와 한해퇴인 1887년에 미국공사 알랜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원통축음기를 가져온 시기이기도하며 그 당시 소리나는 기계를 유음기, 사음기, 소음기, 유성기로 부르다가 축음기로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과정의 역사적 배경에 포함된 축음기 덕분에 문화가 개방되었을것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개항이후 해운은 완전히 외국 선박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이같은 상태에서 정부에 뒤늦게나마 연안 해운이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 외국 선박을 구입하고 기술자를 고용하여 기선을 운행하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82년 민간의 화륜선(火輪船) 구입을 허가하고 2년 후에는 내지제항(內地諸港)으로부터 인천으로 향하는 세곡(稅穀)의 수송을 관리하기 위해 운송국(運送局)을 설치하는 한편 한국 최초로 해룡호(海龍號) · 창룡호(蒼龍號) · 현익호(顯益號) 등 3척의 기선을 구입하였다.

한편 1886년에는 내무부 공작사(工作司)에서 윤선(輪船)을 구입하여 각도의 세곡을 운반케 하였으며 1889년에는 정부에서 기선회사를 설립하고 3척의 기선을 구입하여 연해(沿海)의 수운을 담당케 하였다.

혹은 몇 사람이 모여 기선회사를 설립하고 일본의 윤선이나 범선을 구입하여 운수업을 경영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현철(鄭賢哲) · 민건호(閔建鎬) · 박기중(朴基琮) 등이 1889년 기선 1척을 구입하여 각 항구간의 운송을 개시한 사실이다.

이리하여 1893년에는 국내 수운(水運)에 동원된 한국 선박이 383척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국내의 해운 발달은 대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일본인의 진출로 차츰 몰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이 일본에 병탄될 무렵에는 더 많은 일본인 해운업자가 진출해 와서 한국의 해운은 일본인의 독점물이 되고 말았다. 특히 한일 합방 이후에는 거의 모든 해운업이 정치적 · 경제적 비호를 받은 일본인에 의해 독점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해운 교통기관을 일본이 독점하려고 시도된 첫 예가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의 설립이었다. 이는 총독부가 모든 항해업자를 규합하여 단일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운의 발전을 기한다는 구실로 1911년 1월 300만 원의 자금으로 설립한 것인데 그 발기인 가운데는 한 사람의 한국인도 참석하지 못했다. 어쨌든 회사의 설립과 때를 같이하여 총독부는 이 회사에 대해 이해 4월 이후 3개 년에 한하여 한국 연해 각 방면에 걸친 9선(線) 11항로의 명령항로(命令航路)를 정해 주어 해운업을 독점케 하였으며 1915년에는 원산 · 블라디보스톡의 국제 항로 취항을 명령하였다.

이러한 조선 우선주식회사의 해운 독점은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 해운업이 급속히 발달하여 일본 기선회사의 한국 취항이 불가능하게 됨과 함께 더욱 발전 하였다. 즉 1917년 12월에는 원산·블라디보스톡선이 오오사카까지 연장되고 진남포·대련(大連) 간의 자영(自營) 항로가 개항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청진·돈하(敦賀)간의 정기 항로가 개설되었다.

한편 1920년 3월에는 종래의 명령 항로의 개폐·정리를 단행하고 새로 신의주·판신선(阪新線)을 개설하였으며 1922년 4월에 신의주·초산(楚山)간에 기선 항로를 창설했고 또한 원산·부산간의 직통 항로를 개시하는 외에 1925년에는 부산·제주도·세끼몬선을 신설하였다. 반면 근해 항로를 보면 1922년 4월 공동기선(共同汽船)의 인천 기항을 도모하여 조선 우선주식회사로 하여금 조선·북화(北華) 간의 보조 항로를 개시시키고 1925년에는 근해항로에 조선·상해선(上海線) 및 조선·나가사키·대련선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1931년에 발생한 만주 사변은 이같은 해운의 성장을 한때 위축되게 하였다. 즉 조선·북화선의 위축, 근해 항로인 부산·제주도선의 폐지 등이 곧 그것이었다. 그러다가 만주에 정권이 수립되자 해운업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중국에 정부가 수립되자 한국에 지리적 조건이 높이 평가되어 북한~천진(天津), 북한~청도(靑島), 요꼬하마~한국~천진간 등 3개 항로가 새로 개척되었다.

이상에서 본 해운의 발전은 1938·9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이제 1938년 10월 1일 현재의 개항을 보면 한국을 중점 또는 기점으로 하거나 기항하는 일본 및 외국 정기 항로는 56선에 선박 110척, 종합 톤수 295,540톤이고, 한국 연해 및 하천의 정기 항로는 147선, 240척에 종합톤수는 11,096톤으로 도합 203선, 350척의 306,636톤이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해운의 발전은 2차대전을 전후하여 급격히 퇴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일본이 국가 총동원 체제로 전환되파 아울러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1942년 3월에는 전시 해운 관리령(戰時海運管理令)의 공포로 10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정부의 징발되어 군사목적의 수행에 동원되었고 일반 운송업자나 선원도 침략전쟁 수행의 도구로 차출되어 정상적인 해운의 발전은 완전히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해운의 발달과 병행하여 항만시설도 현대적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항구는 주로 자연적 혜택에만 의존하였으나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400여 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여 부산·인천·진남포·평양·원산·신의주·군산·목포·청진·성진·마산 등 11개 항구에 응급적인 시설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업은 그대로 총독부에 계승되었다. 이리하여 총독부는 1910년 이후 9개년 계획으로 정기 11개 항만에 대한 항만 시설 사업을 시작하여 1915년에는 진남포항을 준공하고 1918년에는 부산항 축항 제1기 공사를 완성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인천에 갑문식선거(閘門式船車)의 준공을 보았다. 이같이 하여 1922년에는 원산항 이듬해에는 인천항의 축항공사 그리고 1927년에는 부산항 축항 제2기 공사의 완성을 보았고 1927년 3월에는 성진항이 완공되었으며 다사도(多瀨島)와 군산의 축항공사는 1930년 8월과 1932년에 각각 완공을 보았다.

그러나 해운의 발달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항만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성항만의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산·인천·원산 등 대 항구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 증축을 단행했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 3~8천 톤급 선박을 동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현대식 항만의 시설을 가하여 1935년 그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상에서 든 항만 외에도 일제 통치 시대에 건설된 항구로는 여수항·해주항·단천항·웅기항·삼천포항·목호항 등이 있는데 이로써 우리나라의 항만도 어느 정도 면목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조선·해운·항만에 관한 바다관련 대중가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 3. 혼란기(Confusion)

바다는 가장 완벽한 형식을 가진 백과사휘(百科事彙)라 그 속에는 과학도 있고, 공학, 이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연희(演戲)도 있기에 바다에 뿌린 수백만 킬로의 궤적이 40년대 해방에서 50년대말의 원양어업, 70년대초 조선공업, 70년대중반부터 해운업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격동시기 상황을 겪었고 그런 정서를 품었던 세대가 사라지면, 바다 관련 노래는 오래 불리기 어렵고 문득 청중을 잃어버린다. 부산항구는 피난시절, 선박과 함께 선원(마도로스)이란 부분이 중요한 한축을 이루기에 항구의 정서와 문화는 선원 가족들의 애환 그리고 오고가는 마도로스에게서 물어오는 이별, 그리움, 사랑, 도전, 희망, 향수, 허무, 젊음, 낭만과 같은 엘레지(elegy) 분위기에 맞는 유행가가 우리의 인생의 흔적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추억이다.

그때 그 시절 해양관련 종사자는 허술한 대포집, 하프방(판자집) 선술집에서 젓가락 장단에 맞춰 마도로스의 대표작 대중가요 마도로스 차을 즐겨 불렀다.

#### 마도로스 차

추미림 작사/ 김교성 작곡/ 백년설 노래

1. 이국의 항구에 무르녹은 수박등  
달빛 젖는 돛대에 마도로스박이다  
저 섬을 돌아가면 수평천리 몇구비  
기타를 통기면서 아 ~ 휘바람분다
2. 별뜨는 항구에 찰랑대는 꽃물결  
순정으로 가득찬 마도로스박이다  
저별을 바라보면 고향산천 그리워  
향수를 달래며 아 ~ 휘바람 분다

대중가요 가사 속에는 가로등, 수은등, 가스등, 호박등, 무영등, 주마등, 장명등, 영란등의 낱말을 많이 쓰지만 바다에 관련된 옛노래에 수박등 단어가 눈에 뜨인다. 수박등이 가요에 쓰는 까닭은 늪지대에서는 사냥용의 작은 배(Melonseed), 그릇배(Lighter)의 등불과 관련이 있고 야포나 등질에 있어서 호광등(互光燈)의 종류에 따른 등색은 주로 홍백이지만 때로는 녹색을 쓰는 관계로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하천, 항만 등에 많이 쓰므로 그 형상과 색채가 호(弧 arc light<lamp>)와 같은 모양의 수박(watermelon)이므로 등나무(류)의 형상과 같은 등화(wisteria flowers)의 뜻인 수박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옛노래에 '눈물의 수박등'을 위시하여 남인수노래의 '고향의 그림자'(손로원 작사/박시춘 작곡)에 수박등으로 표현한 ~떠난 고향일이길래 수박등 흐르진 선창가 전 붓대에 기대서서 울적에 똑닥선 프로펠러 소리 ~가사가 흥미를 부르며 마도로스관련노래이다. 그리고 옛날에는 식물인 아주까리 기름으로 선술집 등잔불로 불을 밝힌 까닭에 아주까리 선창(박종세 작사/이봉룡 작곡/백난아 노래)이란 노래도 나타났다.

그리고 강화도 앞바다 어류정(魚類井)에 관련된 창가는 청구영인과 해동가요의 작가인 김천택과 김수장의 글을 유행가 가사에 많이 인용한 등잔 호롱의 표현과 또한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목포항 안개 속에' 등의 목포관련 노래에 영란등 향수와 화륜선의 급수용 우물인 화룡정(井)에 대한 목포는 이난영의 눈물, 민족의 눈물로 바뀌어버린 등불의 표현이

다. 또한 하역시설이 없는 항구에 대한 수송과 모선의 운항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송방식인 LASH선(Lighter Aboard Ship)은 화물을 적재하고 항내에서는 그대로 pusher barge가 되는 lighter를 각기 따로 탑재하는 선박과 연관성이 있기에 이러한 선박을 수박길합기(A superficial knowledge, smattering)배란 말과 선박형태의 명칭에 대한 BOS 혹은 SEE-BEE 와 같은 맥락이다.

## 마도로스 박

박시준 작사/ 작곡 / 오기택 노래

1. 의리에 죽고사는 바다의 사나이  
풍량이 사나우면 복수에 타는 물결  
꿈같이 보낸 세월 손을 잡아 몇몇해나  
얼마나 그리웁던 내 사랑 조국이나  
돌아온 사나이는 아 ~ 그이름 마도로스 박
2. 인정은 인정으로 사랑은 사랑으로  
한 많은 내 가슴에 술이나 부어다오  
바다를 주름잡아 떠돌아온지 몇몇해나  
얼마나 사모치던 못 잊을 추억이나  
돌아온 사나이는 아 ~ 그 이름 마도로스 박

마도로스 박의 삶이란 사랑, 이별, 고독, 그리움 그리고 뜨거운 재회이며, 이 모든 소재들이 생존의 바다에서 우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바다에 던진 인생항로에 끊어진 인연의 실오라기를 찾아 다시는 끊어지지 않도록 굵은 밧줄로 라이싱하는 것과 같이 반도국가 해양민족인 우리가 거둬 살아가야 하는 무대가 결국 삼면으로 둘러싸인 바다의 삶인 것이다. 1967년 1월 19일 하오 1시 38분 동해안에서 해군 PEC오육함정이 북괴의 집중포격을 받고 침몰, 67명 승무원중 37명 전사, 13명중상, 29명경상의 피해사건 계기로 바다관련 가요를 많이 만들었고 그 뒤 푸에블로호 입북사건을 계기로 바다로 국력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바다 영토 도전에서 해군(1945년 창설)과 해양경찰(1953년 창설)의 뒷 받침없이 경제수역설정, 독도경비, EEZ보호, NLL보호, 어업협정 및 보호, 바다의 범죄 사건사고(치안 및 해양오염) 등이 이루어 지기 힘들다. 그러기에 해군가(김창욱 작사 / 이교숙 작곡)와 상륙전가 그리고 해양경찰가(서정주 작사/김동진 작곡)인 노래가 있고 김상국 가수는 부라보 해군의 바다관련 유행가에서 바다의 사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듯 하다. 40년대 극영화 '청춘항로'(주제가 : 김백희), 60년대 '인정무대'(황문평 곡, 나애실 노래)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감독, 전정근의 합창 주제곡), 71년 장보고, 이순신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박만국 근본, 최창근 작곡)인 '바다여 말하라'가 발표되었다.

해군가

김창욱 작사 / 이교숙 작곡 / 해군본부 제정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의 방패  
죽어도 또 죽어도 겨레와 나라  
바다를 지켜야 만 강토가 있고  
강토가 있는 곳에 조국이 있다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향  
가슴속 끊는피를 고이 바치자

해군은 바다라는 무대에서 배라는 도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군이다. 배가 있고부터 해군이 나타났고 해군은 군함을 필요로한다. 해군의 군함은 물고기와 물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으며 따라서 군함의 속성은 해군의 속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이루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해군 최초 구축함(충무함), 국내 건조 최초 호위함(울산함), 한국해군 최초 잠수함(장보고함), 한국 최초 전투함(백두산함)이 있었으나 이것에 관련된 대중가요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해군함정분류에는 전투함정과 지원함정으로 구별할 수 있고 특히 전투함정에서 지난번 북한과의 서해 앞바다 사건을 교훈 삼아 다음과 같은 함정분류가 최신가요 가사속에 있으면 해군 국방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뉴 히트송이 될 것이다.

전투함정-잠수함정-잠수함(SS),잠수정(SSM)-구축함(DDH)-호위함(FRIGATE)-호계함(PCC,APD)  
상륙함정-상륙함(LST,LSM)-고속 상륙정(LSF)  
기뢰전함-소해함(MSH,MSC)-기뢰 탐색함(MHC)-부설함(LSML,MLS)  
고속함정-유도탄 고속함(PGM,PKMM)-고속정(PKM)와 더불어 21세기 한국형 이지스(AEGIS)함도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1960년대 마도로스 차과 같이 유행했던 바다와 마도로스에 대한 대중가요의 가사를 살펴보면 대개 몇 가지 강조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나라사랑과 의협심이 강한 남성 상을 가르키며 배를 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애국인 것이고 둘째는 이별로 가슴을 태우는 여인의 순정이고 그 다음이 세계의 각 항구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 낭만적 멋쟁이로 그려진다.

대중가요란 그 시대의 시류를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대중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려는 정서라면 아마도 바다관련 대중가요가 유행했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마도로스가 그렇게 비치고 있었는지 모른다. 기실 마도로스가 ‘항구의 첫사랑’ 한을 남기고 떠나는 사나이 들은 결코 아니다.

항구의 첫사랑 < ( ) : 2절 가사>

조국인 작사/ 백영호 작곡/ 남정일 노래  
첫사랑 그대여 무정함 그대여 (야속한 그대여)  
하룻밤 정을 두고 떠나가면서 (가면서 남긴 말씀 잊지 않고서)  
항구의 첫사랑 못 잊겠다고 (기다리는게)  
다시오마 맏세하든 마도로스야 (잘 있거라 하든님야)  
오너라 내게로 항구도 기다린다.

그 당시 마도로스는 세계의 각 항구를 누비고 있던 하지만 진한 고독과 삶의 아픔을 안으로 되씹으면서 인고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마도로스 인 것이다.

마도로스 박의 대중가요가 유행했던 시대는 오늘날처럼 해운력이 신장돼 많은 마도로스가 배출되었던 그런 시대가 아닌, 말하자면 마도로스의 숫자가 적었고, 따라서 마도로스 직업이 희귀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그런 시대다.

1882년 화륜선 구입과 1886년 일본으로부터 기선인 해룡호와 1887년 독일로부터 조양호, 창룡호, 현익호를 사들여 연안 해운에 사용함으로써 우리 나라 해운사상 처음으로 근대화 된 선박을 가지게 되었다.

1893년에는 독일로부터 이운호를 사들여 대한협동우선회사(1900), 인천윤선주식회사(1900) 등의 해운회사와 이운사(1899), 통운사(1901)등의 육운회사들이 설립운영되었다. 이와 같이 1886년 후반부터 여러 선각자들이 중심이 되어 순수한 민간 해운회사들을 세워 많은 활약을 보여왔다. 그러나 1910년 이후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게되자 일본의 횡포로 빛을 보지 못했다(조선우선 주식회사). 그리고 우리 해운은 8.15광복과 더불어 갑종 선장, 기관장을 합하여 6명으로부터 자주자립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지만 그 바탕이 마련되지 않아 처음에는 올바른 방향을 잡기 어려운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곧 우리해운도 차차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여 대외항로를 개척하기 위한 발돋움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해운은 연안해운이 고작이었고,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중개무역이 시직됨에 따라 외항 해운의 길이 열린 것이다.

1948년 4월 앵도호가 광복이후 우리나라 상선으로는 처음으로 홍콩에 닻을 내렸다. 그 뒤 1950년 2월에는 흥천호가 일본에 첫 취항을 하였고 이 시절 대중가요의 가장 큰 정서는 격렬한 '비에감'이다. 다시 말해 눈물과 탄식이므로 마도로스를 바다 나그네 같은 뜨내기 사나이로 나타내었을 것이다.

배로 바다를 나가는 마도로스→P  
마도로스는 배의 나그네→Q  
나그네는 마도로스 →R

이 추론을 기호화하면  $(P \wedge Q) \Rightarrow R$  임을 밝힐 수는 없다. 마도로스 대신에 등대지기로(심홍 작사/박춘석 편곡/외국곡/김보현 노래) 나타낼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등대지기는 바다 나그네로 명제할 수 있다. 즉  $P \wedge Q$ 가 진이라고 해도 R이 반듯이 진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에 바다의 나그네인 토도로지(Tautology) 추론기법이며 등대는 별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를 넣어 두는 외로운 사람의 우체통이다.

### 등대지기

심홍 작사/ 외국곡/ 박춘석 편곡/ 김보현 노래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위에 차고  
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랴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바다의 나그네

호심 작사 / 김성근 작곡 / 최정룡 노래

1. 기름물은 가죽잠바 썸그라스 파이프  
내 이름은 마도로스 바다의 나그네  
하룻밤 맺은정이 왜 이다지도 그리운지  
그 항구 그 여자가 눈에 보인다.
2. 높고 낮은 파도 넘어 흘러가는 사나이  
내 이름은 마도로스 바다의 나그네  
구름도 낯선 항구 말도 다른 이국땅에  
내 나라 그 산천이 꿈을 부른다.

해운은 화물, 선원, 선박을 기본요건으로 하므로 이중 어느 한 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경우 발전할 수 없고 해운 산업은 조선공업에 배경으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절 1948년 조선선박공업협회(현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정부는 1950년 1월 국영기업체인 대한해운공사(대한선주-현 한진해운 1977.5)를 설립하고 해운에 필요한 선박을 만들기 위해 1937년 조선중공업(주)-1945년 신한공사-1950년 후 국영 및 민간으로 반복된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89.5)를 설립하는 등 해운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6.25 사변으로 대부분의 선박이 부서지고 없어져 우리해운은 다시 어려운 시련기를 맞이하였다. 사변이 끝날 무렵부터 항로개척에 힘을 기울여 연안의 장거리 항로로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주문진항로와 울릉도항로, 그리고 제주 - 목포를 연결하는 항로들이 휴전과 때를 같이 하여 연안 항로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연락선은 떠난다 (박남포 작사 / 이봉룡 작곡 / 장세정 노래) “ 연락선 고동소리 울어  
~ 주는데, 잘가소 잘있오 이별술픈 밤 부두 ~”

귀국선 (손로원 작사 / 이재호 작곡 / 이인권 노래) “돌아오네 ~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그랬던가 무궁화 꽃을 ~”

바다의 교향시 (김능인 작사 / 손목인 작곡 / 김정구 노래) “어서가자 가자 바다로  
가자. 출렁출렁 물결치는 십리포구 바닷가 ~”

해조곡 (이부풍작사 / 손목인 작곡 / 이난영 노래) “갈매기 바다위에 울지 말아요.  
물함자 저고리에 눈물젖는데 ~ ”

잘 있거라 항구야(천마도 작사 / 이재호 작곡 / 진방남 노래) “들어라 마지막 잔이다. 날이  
세면 이 항구도 이별이란다. 갈매기 비에 젖어~”

이 노래들은 혼란했던 사회상을 말해주는 대중가요이며 일반대중에게 유행하였고 많이 불리어졌다. 그리고 나룻배처녀, 처녀뱃사공 노래도 이 시기 전후에 유행하였다. 아오라지나룻터와 더불어 지금도 섬진강을 오가는 나룻배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화개와 구례를 하나로 잇는 상징물로 화개 사람들은 운천에서 농사짓고 운천사람들은 화개장터에서 물건을 산다. 그러나 현재 섬진강 운천나루에서 나룻배를 모는 이는 구례 나룻배총각, 총각뱃사



공으로 바뀐 세월의 흐름과 뱃사공인 선부의 아내(추미림 작사/ 박시춘 작곡)와 섬진강 나룻터(정두수 작사/ 박영선 작곡/ 은방울 자매 노래)도 그 시절 유행하였다.

또한 1947년 조국광복을 염원했던 동포들이 앞을 다투어 귀국선을 타고 돌아왔다. 이런 귀국동포들의 기쁨을 노래한 귀국선의 첫 가수는 손석봉이었고 장세정은 평양백화점 악기점 점원으로 있다가 16세에 가수로 발탁되었기에 더욱더 인기 있는 대중가요가 되었고 그 뒤에 조명암(본명:조영출), 박영호 등이 월북한 관계로 사변 후 많은 노래의 작사, 작곡가 이름이 변질되었고 특히 '알뜰한 당신', '변지없는 주막' 등이 대표적인 노래이며 각 지방마다 사연이 있는 노래비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남아있다. 여기서 연락선은 떠난다, 잘 있거라 항구야, 마도로스 수기 등을 작사하고 노래까지 불렀던 이의 본명은 박창호이며 그는 작사자는 반야월, 노래는 진방남으로 발표하고 다른 예명으로 추미림, 박남포, 남궁려, 백구봉, 고향초, 허구란 이름으로 만든 곡과 '동백아가씨'의 국민가수 이미자도 우리가요사에 길이 남을 이름이다. 또한 첫 취입가수 노래는 사라지고 모창가수 노래가 가요무대에서 부르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차피 네박자(송대관 노래)인 인생사 쿵작(뽕작)인 노래이다.

동시에 외국과의 항로 개척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1951년 4월 부산과 일본을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비롯하여 중국과 홍콩을 잇는 항로, 사이공 - 방콕을 잇는 타이항로가 개설되었는가 하면, 부산 - 일본 - 홍콩 - 싱가포르 - 켈커타를 연결하는 인도항로가 개설되어 여수호가 취항하였다.

이시기 해외에 대한 동경과 50년대 미국 서부활극영화가 많이 상영되어 유행한 대중가요는 '인디언 로맨스', '월남의 달밤'(윤일로 노래), '아리조나 카우보이'(명국환 노래), '나폴리 맘보'(현인 노래), 와 더불어

- 홍콩아가씨(손로원 작사 / 이재호 작곡 / 금사향 노래)
- 인도의 향불(전호승 작사, 작곡 / 현인 노래)
- 페르샤 왕자(손로원 작사/ 한복남 작곡/ 허민 노래)
- 런던 소야곡(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 장세정 노래)

등이 히트하였고 특히 무명초 항구란 노래로 외국의 향기를 느끼게 하였다.

### 무명초 항구

김영일 작사 / 이재호 작곡 / 백난아 노래

신호등이 쏘고 있는 사이공 부두 갈매기 날개속에  
 카누야 가자 물길어 험크러진 열대의 꽃잎  
 아득한 밀림 속에 모닥불 곱다.

이 노래에서 카누의 날말을 의미해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는 그 지역의 풍토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의 배가 만들어 졌다. 즉 다우(사우디아라비아), 마슈와(인도, 스리랑카), 삼판/정크(중국, 홍콩), 사비나(일본), 카약(알라스카), 카누(아프섬, 피지)와 곤도라(이탈리아) 등이 노래말에 많이 쓰인다. 예로 '사랑의 비너스'(호심 작사/김성근 작곡/양부길 노래)인 ~은 물결 곤도라에 사랑도 깊어가네 노젓는 사공들의 콧노래도 흥겨워라~ 같은 노래이다.

또한 1952년 10월 처음으로 화물을 실은 고려호가 멀리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취항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우리 나라 해운이 다른 여러 나라의 항로를 개척하고 확장해나간 시발점이라 하겠다.

이 시기에 '아메리카 차이나타운', '샌프란시스코'(손로원 작사 / 박시춘 작곡 / 장세정, 백설희 노래) "같은 노래가 유행하였고 특히 1959년 12월 14일 일본인 처를 포함한 북송교포 975명을 태우고 나가타항을 떠나는 북송선 1호 클리니온호에 얽힌 가요는 우리의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다.

#### 4. 재건기(Reconstruction)

1960년에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던 외항선은 모두 합쳐 47척에 약 11만 2천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6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 해운은 경제개발계획에 있어 국가의 기간산업의 하나가 되어 선진 해운국으로 발돋움 할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 초 한국해기사협회가 설립된 시기이다. 이때부터 선원문제가 한국선주협회, 해운조합 등에서 부각되고 대중가요에 마도로스와 관련된 가사내용의 유행가가 소곡(piece)인 즉흥곡(impromptu), 환상곡(fantasia)으로 만들어졌으며 70년 말까지 약 100여곡이 작사, 작곡되어 20여곡이 히트하였고 오늘날까지 대중속에 남아 있다.

그때 그 시절 마도로스 대중가요는 마도로스 리듬인 경쾌하고 신나는 울지루박과 롬바곡이 주종을 이루었고, 1960년대 초 외국곡으로 유명한 부기우기(Boogie Woogie), 림보(Limbo)에 곡을 붙인 가사와 도둑바, 도르트트의 곡에 하모니카, 아코디언과 기타의 음악에 맞춰 작곡한 마도로스 멜로디가 유행하기도 했다.

또한 1952년 대한 조선학회 설립과 1960년 8월 한국선급협회(KR)가 설립되었지만 1970년 초까지는 국내 조선 산업의 발달이 미비하여 주로 일본으로부터 중고선 도입 또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에 의해 선박을 확충하였다. 1966년 대한조선공사(조공)에서 건조한 2600G/T급 화물선이 미국선급협회(ABS)의 입급검사에 합격하므로써 국내선박건조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여 1967년 조공과 대선조선이 부산 30척을 월남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었고 1969년에 조공은 250G/T급 참치어선 20척을 대만에 수출하므로써 우리나라 조선공업이 해외시장 개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70년초 조공은 당시 일본에 비하여 선가결제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석유회사의 하나인 미국 걸프사로부터 정제유조선 2만톤급 4척, 3만톤급 2척을 수주하는 등 국내 선박건조 수출의 시대가 개막되게 되었다. 그러나 1974년 오일파동으로 국내조선업계가 선박수주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우리화물을 수송토록 하는 해운, 조선업계 발전을 강구토록 한 시기이기도 하며 조선 해운 항만 및 연구소, 학회 등 기타 관련단체와 이 시기 전후로 현대, 현대미포, 대우, 삼성, 한라인 대형 조선소(중공업)가 설립되었다. 이시기 정부는 1976년 해운과 항만에 관한 일을 총괄해서 처리하는 국가기관으로 해운 항만청(현 해양수산부)를 창설하고 1977년 해운의 날(3월 12일)로 제정하여 1977년 한국조선공업협회 설립과 조선해운의 개발로 이 나라의 발전과 중흥을 이룩하겠다는 해운입국의 강한 기치를 내걸었지만 1980년 전후 이 무렵 2차 석유파동의 여파에 더하여 박 대통령서거, 12·12사태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어 구조조정 조치가 단행되었고 아시안 게임(1986년), 올림픽(1988년)을 계기로 정부는 해운의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지원해 그 결과 오늘날 선진 해운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이 시절 선원이라기 보다 통칭 마도로스라 불리웠던 그시대의 선원상은 어느 직업보다 최상의 인기를 누렸고 통칭 의리의 사나이로 불리기도 했다.

이같이 마도로스는 구한말에 있어서 1908년(광무11년) 선원양성을 양무호라는 선박을 사용하여 실습을 실시한 기록과 더불어 1930년 몇몇 뜻있는 선각자가 일본, 상해 등지의 상선학교에 유학한후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고급 해기사로 명성을 날리다 2차 세계대전 후 광복과 함께 조국의 해운산업육성을 위해 헌신했던 기록들이 있다. 이 시기 1909년 민족음악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악과 양악을 가르치던 유일한 조선구락부의 후신인 조선정악전습소가 있었는데 이곳 출신인 홍난파(洪蘭波: 본명 永厚)는 통속창가집에 13곡을 수록하였는데 그중 바다 관련노래에 노한파도, 행선(行船)이 있고 내용은 주로 변악곡이며 그후 30년대에서 40년대 마도로스에 관련된 대중가요는 김용한의 '마도로스 노래', '숨쉬는 부두', '청춘 부두', '바

다의 '노래', 채규엽의 '순풍에 돛을 달고', 김해송의 '선술집 풍경', 진방남의 '잘 있거라 항구야', '대지의 항구', 백년아의 '갈매기 쌍쌍', 최남용의 '비오는 선창' 등이 있고 동경제국음악 학교 성악과 출신인 이규남은 '젊은 마도로스' 노래를 불러 히트하였고, 유선원의 '마도로스 꿈', 백년설의 '마도로스 수기'는 굉장히 히트하였다.

### 마도로스 수기

추미림 작사 / 이재호 작곡 / 백년설, 진방남 노래

1. 항구야 ~ 항구야 우리들은 마도로스다  
 창파를 헤치는 몸이 사랑도 고향도 가시기가 싫다  
 들어라 그라스를 너도 같이 들어라  
 내일은 어느바다 어느 항구에다  
 뱃고동을 울릴 것이냐  
 후렴-이봐 여자 술을 다오 내 심장을 화산처럼 타오르게 할  
 독한 술을 가져와 파르란 말이야 바다의 사나이는 바다에서  
 태어나 바다와 싸우다가 바다에서 죽을 목숨 두려울게 무어란 말이  
 야 하하하... 번개나 파도나 자 보아라 내 구릿빛 팔뚝을 보아라 말  
 이야 하하하... 나는 바다에 풍운아야 마도로스 박이란 말이야
2. 부산항 떠나서 사이공 우리들은 마도로스다  
 뱃일이 천리만리라 우리는 바다의 날고 기는 용사  
 불어라 비바람아 닥쳐어라 파도야  
 찌멀리 감박이는 등대를 찾아  
 뱃머리를 돌려라 돌려.

그 당시 마도로스 수기는 바다관련 학생들 사이에 가사를 바꾸어 많이 불렀고 '이별의 인천항' 가사에 마도로스 대신에 항해사란 노랫말이 흥미를 일으키는 노래이며 70년대에 항해사를 마도로스로 바꾼 가사전달이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홍콩의 윈손잡이(이미자 노래), 그 후 홍콩 엘레지(김상희 노래)도 함께 유행하였다.

### 이별의 인천항

(세고천 작사 / 전오승 작곡 / 박경원 노래)

1. 상고동이 울어대는 이별의 인천항구  
 갈매기도 슬피우는 이별의 인천항구  
 항구마다 울고가는 항해사의 (마도로스) 사랑인가  
 정들자 이별의 고동소리 목메여 운다.
2. 항해사의(마도로스) 수첩에는 이별도 많은데  
 오늘밤 그라스에 맺은 인연은  
 항구마다 끊고가는 항해사의(마도로스) 사랑인가.  
 물새들도 눈물짓는 이별의 인천항구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마도로스 노래에 관한 가수를 뽑으라면 당연히 백야성, 오은주, 비둘기 자매의 가수를 기억할 것이고 가요사에서 이들의 마도로스 노래는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백년설, 남일해, 오기택 등의 남자가수 15%는 해운관련 노래이며 백난아, 최숙자, 하춘화 등의 여자가수 25%는 수산관련 노래이나 어부, 그물에 담긴 사연의 어로 대중가요는 가수 연석원이며 수산관련 민요의 노래는 김영립, 김세레나 등이다.

이중에서 노래 제목에는 백야성이 부른 마도로스 도둑바, 마도로스 사랑, 마도로스 멧쟁이, 마도로스 삼총사, 마도로스 첫사랑, 마도로스 부르스, 마도로스 부기의 바다관련 가사를 포함하면 상당수되며 특히 번지와 관련된 가사가 매력적이다. 해운1번지 한진해운, 조선1번지 한진중공업과 영도 봉래동 13번지 항내 부근 덩추(Brothel), 해양교육1번지인 영도 동삼동1번지와 같이 항구의 주소를 0번지, 1번지로 한 가사가 있고 특히 일본의 마도로스 노래에는 港町十三番地가 가장 대표적인 옛 노래곡이며 한국의 대중가수 김연자가 70년대에 번안 가요로 히트시켰고 그 당시 서울 청량리 588번지, 부산 부전동 300번지 부근(Harloty) 유흥가의 카바레나 무도장에 마당과부, 계명우리들의 춤곡으로 유명하였다.

港町十三番地

長い旅路の 航海終えて  
船が港に 泊る夜  
海の苦勞を グラスの酒に  
みんな忘れる マドロス酒場  
ああ港町十三番地

마도로스 부기 (( )안은 2절가사)

(이철우 작사 / 한복남 작곡 / 백야성 노래)

항구의 일번지 부기우기 일번지  
그라스를 채워다오 부기우기아가씨(소원을 풀어다오)  
고동이 슬피우면 이별이란다(추억도 많고 많은 사나이란다)  
저 달이 지기 전에 이 술이 깨기 전에(고동이 울기전에)  
부기우기 부기우기 마도로스 부기우기

그리고 오은주가 부른 마도로스 노래는 그 당시 11살 된 소녀가 불렀다 하여 천재 소녀가수로 지목을 받았고, 멧쟁이 마도로스(김진경 작사 / 고봉산 작곡), 아빠는 마도로스(고봉산 작사 / 작곡), 마도로스 아홉 살(반야월 작사 / 고봉산 작곡), 오빠는 미남의 마도로스(최지수 작사 / 라음파 작곡), 나는 마도로스(남성포 작사 / 손목인 작곡)등이 히트하였다.

또한 마도로스 노래의 재미료적인 여성보컬팀 비둘기 자매는 발랄한 울동과 짜임새 있는 음색을 구사하여 각광을 받았고 마도로스 딸(반야월 작사/ 라음파 작곡), 마도로스 여선장(반야월 작사/ 고봉산 작곡)등과 마도로스 잘 가세요(김진경 작사/ 라음파 작곡 아세아 레코드사)(이철수 작사/ 김화영 작곡/ 최숙자 노래/ 신성 레코드사)는 같은 제목의 곡으로 정화순 가수가 불러 히트시켜 그 시절 선원가족들의 삶을 노래하였고 지금은 이 노래들이 해양문화 및 문화와 관련된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1984년 선원법 개정에 따라 여성도 선박에 승선할수 있지만 1970년대 마도로스 직업이 최상일 때 영화배우 윤정희가 주연한 마도로스 영화가 만들어져 마도로스 여선장같은 가상의 노래도 생겨났다.

마도로스 딸(---/ 아버지는 국제항로 바다의 왕자 그 이름도 멧쟁이, 멧쟁이 마도로스다)  
마도로스 여선장(---/ 약한 몸의 여자지만 남자에게 지지않는 마도로스 여선장---)  
(---/ 이름이야 여자지만 바다에는 자신있는 마도로스 여선장---)

아빠는 마도로스

(고봉산 작사 / 작곡 / 오은주 노래)

1. 태풍이 분다 경보가 내려 엄마는 걱정하셔도  
    씩씩하신 우리 아빠 그까지것 문제 없어요  
    확물선 뱃머리 파도속에 파물쳐도  
    아 ~ 고향길 기르키는 나침반에 희망을 안고  
    바다와 싸워 이긴 아빠는 마도로스
2. 기적이 운다 돌아온 철선 상륙에 닻을 내리네  
    기다리던 우리아빠 오늘이나 돌아오네요  
    사주마 약속하던 좋은 선물 가득안고  
    아 ~ 소리쳐 나를 부른 금태모자 옷차림에  
    엄마도 싱글벙글 아빠는 마도로스

이 노래는 59년 제14호 태풍 사라(SARAH) 태풍(Typhoon, Hurricane)과 73년 제10호 태풍 아이리스를 겪은 후의 노랫말로서 중심 최대 풍속이 64노트(풍력 계급, 풍속 33m/sec)이상인 것을 일반적인 태풍이라하고 노랫말 가사에는 파랑을 물결로 표시한 조선기사와 항해사인 대중가요 '꽃과 나비'(김부해 작곡/방주연 작사/노래)인 관계로 태풍의 사나이로 불리었고 사라호 태풍관련 대중가요인 눈물의 연평도(김문웅 작사/ 김부해 작곡/ 조미미 노래)도 그때 그 시절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시기에 바다에 나가서 떼돈을 벌려면(땃사공들에게 땃목은 나무가 아니라 돈이었다란 말에서 떼돈벌었다의 말이 생긴 것이다.) 선원 취업에 가장 까다로운 이비인후과 신체검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소리관련 부분이다. 예로 귀가 좀 멀다하여 걱정이되어 취직하기 위하여 보청기를 끼우기만 하면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한 선원이명(耳鳴) 취업자는 시중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여 소리의 크기인 데시벨만 높이고 주파수 헛트츠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모처럼의 취업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와 같이 소리에 관련된 귀막이는 바다생활의 사고에 관련되므로 이것의 보안용으로 옛부터 응급조치용 치장 것으로 대처하여 사용한 마후라(머플러, Muffer), 스카프(Scarf)가 멧으로 등장하고 목에 목도리 모양으로 걸고 다니며 땀을 닦는 수건 역할도 하였고 모자나 소매에 들려진 크레이프(crape)의 상징이나 벼슬에 노랑 무늬가 있는 북미산 명금(지저귀는 새) 혹은 휘파람 새과의 작은 새(myrtle warbler)로 생각하여 소리로 구성된 사물의 특성을 금태모자에 치장하였으므로 마도로스의 노래가사에 자주 등장한다.

한반도 해역에 낙랑해돈(樂浪海豚)이 있는데 코가 돼지고 같고 휘파람으로 서로 말올하며 새끼를 거느리고 다닌다 했다. 선원이 그 새끼를 잡으면 몇날 몇 밤을 세워서라도 그 배를 쫓아 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뱃전에 머리를 부딪쳐 피를 흘리며 읍소하기에 놓아 주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내용으로 원래 포악한 것인지 인간의 이기적인 혹사예의 반동인지 포악해지

는 인간 세상을 닮은 것으로 치장하였는지 모르겠다.

세계명가곡 ‘바다로 가자’(Canzon Veneziana : 테너 김화용), ‘바닷가에서’(F.Schabert : 바리톤 이훈), 희망의 나라로(현제명 작사 / 작곡), 사공의 노래(한호명 작사 / 홍난파 작곡 / 최남용, 윤영민 노래), 해운의 노래(이은상 작사 / 김성태 작곡), ‘바다의 노래’(김갑식 작사/이수인 작곡/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 제정, 산울림 김창환 노래)에서 잘 표현된 해운산업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조선공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선박의 중요성은 수송능력(Carrying Capacity)에 있다. 선박의 수송능력은 선박의 형태, 크기, 속력에 따른 재화능력 뿐만 아니라 항로, 항구 및 선원의 여러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그 당시의 선박다운 선박도 없었거니와 보유선박 또한 미비하기 이를데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가요속에 배를 나타내는 노래가사에는 연락선, 여객선, 귀국선, 화물선, 무역선, 외항선, 화륜선, 똑닥선, 기범선, 나룻배 등으로 상업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수송을 웨리로 표기하였고 이제는 선박도 부동영토(浮動領土, floating territory)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삶은 한 세상 살다보면 얼마나 여러차례 사람이 선박신세를 지게되는가 문득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길이 끊어져 당황 할 때가 많았던가 그러기에 바다는 언제나 배를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를 향한 고마움을 생각하게 한다. 이쪽과 저쪽, 차안과 피안을 하나로 이어주는 배가 있기에 우리는 끊어진 삶과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배라는 뜻이 한문자로 등장하는 대중가요 가사에는 舟(주), 船(선), 항(航), 소(艘)등이 있고 큰배로서는 박(舶), 가(舸), 반(般)등이고 작은 배로는 정(艇), 거루도(舠), 맹(艇) 거루조(艘)등이 나타나며 또한 韓船에 선(船), 주선(舟船), 선박(船舶), 주가(舟舸) 등이 쓰인 흔적이 있다. 특히 노라는 뜻을 가진 글자는 노(櫓), 장(槳), 요(橈), 도(棹), 도(櫂), 줍(楫)등으로 얼마든지 많은데 櫓槳은 동양식 노(sweep), 橈櫂는 서양식 노(ore)이며 배를 물가에 뺄 때 또는 물이 열린 곳에서 배를 밀어갈 때에 쓰는 장대나 삿대는 도와 줍을 뜻하는 글자로 명칭을 붙이므로 바다관련 홀러간 대중가요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인선, 기중기, 크레인 가사인 해양건설의 노래도 있지만 그 당시 기술자들은 航用學, 鋼造學, 建造力學(谷 口忠 著, 소화30년)이란 학문을 배운 세대라 50년대 건설회사 社歌와 대한조선공사 社歌(김만호 작사/이연형 작곡)에 건설관련 가사가 있고 지금의 중공업(조선소) 社歌는 바다관련 가사이다. 그리고 가요곡 중 ‘아빠는 마도로스’에 철선이란 단어와 ‘항구의 얼굴’ (김병아 작사/ 김부해 작곡/ 윤일로 노래)에 나오는 화륜선(汽船, Steam ship)과 기범선(Motor powered sailing boat)은 레시프로에서 터어빈으로 이어지는 시대이며 똑닥선(Steamboat Motor boat, (박문욱 작사 / 작곡 / 소라모아 노래)), 내 님 실은 카페리(이종섭 작사/ 작곡/ 노래), 나룻배(나훈아 노래/ 전우 작사/ 박성규 작곡/ 설운도 노래), 카페리호(정은이 작사/ 남국인 작곡/ 숙자매 노래)에 따른 연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수중익선이나 공기부양선에 관한 내항 해운의 노래는 없다. 1920년 대 건조된 배들은 상갑판과 외판을 잇는 부분이라든가 빌지킬과 외판을 이은 조립방식인 리벳이음으로 건조된 리벳선박(Rivet ship)을 생각하면서 작사자는 60년대에 가사를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절 조선기술자를 농으로 쇠배목수 혹은 땀쟁이라 부른때이다. 그 시대의 조선선체재료의 변천사에서는 우리의 항구에 입항하는 배들 중 1920년대에 목선 4.0%, 기선 1.1%, 철선 6.8%, 강선(鋼船)88.1%를 차지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지나 61년도 세계최초의 자동화선 金革山丸(9800 D/W, 디젤선)을 중심으로하여 초지능 자동화선과 무개형 컨테이너선과 초고속정 같은 특수한 선박들이 이어지고 있다.

또 노래가사에 지방 항구명(부산, 인천, 목포, 여수, 군산, 충무 등)이 등장하고 포구(Habour)나 진(Ferry) 같은 낱말이 노래가사에 많이 나타난다. 즉 포(浦)란 본래 개펄을 의미하는 것으로 浦의 음을 이루는 보(浦)는 [갈려 퍼져나간다]라는 뜻이다. 그런식으로 작은 물이 큰물에 썩이는 곳엔 개펄이 있기 마련이고 이 주위에 마을이 형성된다. 그런 개펄이 곧 浦라 하지만 대개는 [시냇물이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는 어귀]라는 뜻으로 이해되기에 대

증가요가사에 浦에는 이런 저런 배가 정박하는 작은 항구라는 뜻을 가졌기에 노래 가사에 적용을 하였고, 浦와 달리 사람이 물건을 싣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나룻터 즉 津(津)이므로 나룻터에서 조각배위에 실어놓은 물건을 주고 받던 모습을 본뜻짓인 수(受)자는 爪, 舟, 又 이상 세가지 의미로 구성된 것이었는데 舟가 ㄱ으로 잘못 바뀌어진 관계로 유행가 가사에 많이 나온다. 이런 곳에 옛 시대에는 뱃사공(船夫)이 있었고 석별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라 하며 가요에 많이 쓰여졌다. 낙동강의 노래(반야월 작사/ 백창경 작곡/ 조계숙 노래)와 '비 오는 해관' 이 대표곡이다.

### 비 오는 해관

조경환 작사/ 전기현 작곡/ 백년설 노래

비오는 포구에서 정든님을 보낸다  
빛줄기 눈물속에 고통이 운다(깨어진 꿈조각에 설움이 찬다).  
잡가소 잡있소 이제가면 언제오나  
아아 바다끝 구름속에 등대가 켜다(아아 해안선은 안개덮혀 가슴 쓰린다)

## 5. 성장기(Growth)

해방전의 마루식 선명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釜山과 下關 간 달리던 '현해탄'(조동산 작사 / 원희명 작곡 / 문희옥 노래) 가사에 나오는 연락선일 것이고 선명은 天山丸, 德壽丸, 昌德丸이며 1969년 유한철이 각색한 시나리오 '사의 찬미'를 안현철 감독, 신성일과 문희가 주연한 극영화 삽입곡 '바다가 멀다해도'(황문평 작사 / 작곡 / 황정자, 김신덕 노래)에 나타난 배이름은 덕수환으로 지금의 중년층 이상의 사람들은 기억할 것이다.

1955년에는 마루(丸)시대에서 호(號)로 바뀌었고 이런 시기에 선박의 이름작명을 일변해보면 조금 큰 화물선은 대체적으로 도, 군, 시와 같은 지명이나 국내 명산의 이름을 따고 소형 화물선은 선주의 이름이나 가문이고 여객선에서는 고궁(古宮), 꽃 이름, 새 이름 등 자연 풍경 또는 목적지명에서 따는 수가 많았다. 즉, 자연환경의 요소에서 사계절 꽃동산 (봄 : 꽃과 실록, 여름 : 녹음, 그늘, 바람소리, 새소리, 가을 : 낙엽, 열매 겨울 : 썰매장) 녹지공간 (돌, 물, 이끼, 농굴식물, 약수터, 샘터) 수경시설(분수, 수로, 폭포, 낙수, 연못) 전원이미지 (정자, 우물가, 냇물, 빗물, 과수원, 돌담) 체험공간(텃밭, 꽃밭, 화훼원, 약초, 꽃길) 놀이공간(놀이터)등을 사용하여 노랫말의 가사를 구성한다.

한편 어선들은 어구나 물고기 종류나 때로는 행운을 원하는 낱말 등이 쓰였는데, 무동력선인 범선류가 많아서 새삼스럽게 선명이라 할 것 까지도 못되고 대개는 아무개네 집 배란 정도였다. 예로 그로발 프로그레스(GLOBAL PROGRESS), 한글로는 8자 영문으로는 14자인 선명을 한문 형식으로 쓰면 GLOBAL은 전세계나 종합이란 뜻이며 PROGRESS는 전진(前進)이니 진행(進行)이란 뜻이라 보고, 世進이니 汎進이라 하면 불과 2자로 선명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명은 배의 좌우양현과 선미 3개소에 붙여야 하는데 우리 재래식이면 2 × 3 = 6 으로 족했던 것이 서양식이 되므로 8 × 3 + 14 × 3 = 66이나 된다. 이것을 용접으로 가스절단하여 선명을 표기하는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은 배 이름을 세계화 추세와 세계경쟁을 위해 기항지 이름, 세계 주요국 수도이름, 도전, 웅장, 대륙등 중후장대 한 회사그룹의 이미지 이름과 사장의 호를 따서 짓고 시리즈인 배는 회사상호에다 숫자(1호, 2

호....)를 넣어 짓고 특히 미국의 경우 역대 대통령 이름으로도 짓는다.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선박과 승무원의 안전운항을 기원하기 위해 여성을 스폰서로 초청해 진수식을 갖는 것은 중세기 이후부터 지속된 조선-해운업계의 오랜 전통으로 통상 선주의 부인이 스폰서를 맡는게 상례이나 75년 고 육영수여사가 원유 수송선 코리아 선호의 명명식 스폰서를 맡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조선 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1999년 7월 20일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SK 해운 LNG 선 명명식에서 기념 테이프를 잘랐다는 사실로 보아도 아직까지 바다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요즘은 드라이 도크에서 건조한 배의 진수식이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명명식(命名式, christening ceremony)으로만 행사를 끝낼 때가 많다. 이러한 때 명명자나 샴페인 세레자를 크리스티너(christener)라 부르며 스폰서(sponsor)라는 호칭도 같이 쓰고 있다. 또 바다관련 노래가사에는 조선, 해운을 중심으로 뱃머리(Bow), 데크(Deck), 마스트(Mast), 닻·앵커(Anchor), 항로(Route), 나침반(Compass), 밧줄(Rope), 프로펠러(Propeller)등의 조선용어 및 선용품과 술잔(그라스), 물새, 사공, 등대, 수평선, 파도, 갈매기, 선그라스, 파이프, 부두, 선착장 등등의 단어로 노랫말에 남녀간의 이별, 정, 그리움, 등의 가사전달 속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사람의 감정을 전달하였고 부두(서판석 작사/ 이애리 작곡/ 윤충식 노래), 여객선(백암 작사/ 박춘석 작곡/ 이미지 노래, 목포 제주 간 운행), 정든 배는 떠나네(진명준 작사/ 원희명 작곡/ 국보자매 노래), 떠나가는 배(이수진 작사/ 이유린 작곡/ 설운도 노래), 연락선 떠나가네(오동식 작사/ 작곡/ 서울 웨미리 노래), 연락선 엘레지(백호 작사/ 박춘석 작곡/ 손인호 노래, 마스터 용어)등이 대표곡이다.

### 첫사랑 마도로스

석천 작사/한동춘 작곡/남일해노래/현월 노래

1. 푸르른 달빛이 파도에 부서지면  
 파이프에 꿈을 실은 첫사랑 마도로스  
 데크에 기대서면 그날 밤이 그림구나  
 항구마다 정을 두고 떠나는 사나이  
 그래도 첫사랑 맺은 님은 잊을 길 없네

2. 가스등 희미한 부두의 그날 밤에  
 울며불며 잡던 입을 뿌리친 마도로스  
 댕구는 기름웃에 갈매기가 벗이구나  
 그라스로 맺은정이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첫사랑 아가씨가 나를 울리네

이 노래는 그 당시 배를 타고 항해를 해 본적이 있는 선원이라면 이내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노래를 제대로 음미하려면 60년대에서 70년대 초 월남 파병과 무장공비 침투 김신조 사건에 관련된 우리 바다 환경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국내최초 처음으로 1만 8천톤 펜코리아호를 첫 취항시킨 시기이기도 하다. 누구나 어려운 시절이고 세기 거르지 않고 먹으면 그게 행복인줄 알던 때였다. 특별한 오락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놀이문화조차 보기 힘들 때였다. 그 당시 바다관련 월급쟁이들은 퇴근 후 하꼬방(ハコ房) 대포집(간판이름 : ○○옥(Jade)) 사랑방에서 되모시와 젓가락을 두들이며 뜨내기 인생같은 삶을 노래했고 그때 선술집 마담들의 구슬픈 목소리에 깔린 '거리에 핀 꽃'은 그당시 여성의 삶이 잘 표현되었기에 가난한 순정의 노래로 자주 불렸으며 '잘 있거라 부산항'은 그 시절의 히트곡이다.



거리에 핀꽃

(이재호 작사 / 작곡 / 윤일로 노래)

가엤다 인생사리 황금이 원수로다  
웃음 눈물을 흘리면서 거리에서 거리로  
흐르는 세월 따라 세상을 원망하며  
밤마다 꿈마다 황금에 짓밟히는  
가련한 인생

잘 있거라 부산항

(손로원 작사/ 김용만 작곡/ 백야성 노래)

아~ 잘있거라 부산항구야  
미쓰김도 잘있어요 미쓰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있으랴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항구야

그리고 그곳 주점(酒店, Tavern)에서 회포를 풀고 하룻밤 풋사랑과 '정정정'(이용일 작사 / 고봉산 작곡 / 안정희 노래)으로 이루어진 '눈물의 파티'(박진호 작사 / 이범희 작곡 / 조용필 노래)까지 만들어낸 곳이 부두 부근 주막집(여인숙, INN)이며 외상술을 마시는 주제에 안주는 커녕 여인의 순정으로 안주삼아 불렀던 노래가 바로 부두의 주점과 비에 젖은 주막집(고려성 작사/ 이재호 작곡/ 박재홍 노래)이다.

부두의 주점

(김문룡 작사/ 락옴파 작곡/ 오은주 노래)

한 송이 장미 꽃이 피어난 주점  
마도로스 정을 맺은 부두의 주점  
전복의 술 안주에 순정을 바친  
내 사랑 가는 곳은 부두의 주점  
아 내 사랑 가는 곳은 부두의 주점

사랑에 병들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가슴에 타는 불길 잡지 못해 기어이 울어버린 그 여인 사랑이 이별인걸 왜 몰랐을까. 실연의 눈물로 사랑을 알게 하고 이별의 눈물로 인생을 배워 준 이가 바로 바다의 사나이들이다. 또 그 당시 전기사정이 좋지 않아 정전이 자주 있을 때는 촛불이나 석유등잔이 밝힌 어둠침침한 술상 앞에 색동지고리에 짓은 화장을 한 여인의 지독한 화장냄새속의 酒色(Wine and Woman), 그런 酒癡 가운데서도 서로가 농담이나 수수께끼에도 터지던 웃음. 지금 돌아보면 아련한 향수로 다가오는 그 시절을 바다의 사나이로 첫사랑을 경험해 본적이 없는 사람에게 첫사랑 마도로스 가사인 <첫사랑 맺은님은 잇을 길

없었네>라는 구절을 실감나게 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 노래에서 가장 큰 애착을 지닌 대목은 2절가사에 <그라스로 맺은 정에 상처만 남기고>라는 구절일 것이다.

술자리에서 그 시절을 노래하던 ‘그 때 그 사람’(심수봉 노래) 생각나고 50대 중년사내가 된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는 ‘젊은 날의 부루스’(박건호 작사 / 김영광 작곡 / 김연숙 노래)가 있기에 이제는 몽니(오기)에 벗어난 옛 추억이 생각난다. 이젠 술자리에서도 흘러간 노래라고 홀대받지만 그래도 바다사나이에게는 사부곡(恩父曲)인 셈이다. 오늘날 조선공학도는 뿌리친 마도로스는 못 되었지만 선박설계, 건조자의 입장에서 이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 외 마도로스 노래에는

기타치는 마도로스(항해사) (반야월 작사 / 라음파 작곡 / 이순애 노래)

첫사랑 마도로스(항해사) (석천 작사 / 한중훈 작곡)

아메리칸 마도로스(김진경 작사 / 고봉산 작곡)

‘마도로스 아가씨’ ‘마도로스 사랑’, ‘마도로스 굿 바이’ 등이 있고 특히 마도로스 굿바이의 노랫말 가사에 어간에 가 흥미를 돌군다,

### 마도로스 굿바이 (킹스타 레코드 발매)

(유노원 작사/나확탕 작곡/최숙자 노래)

1. 울리고 가지마소 나만 두고 가지 마오  
꽃처럼 피었다가 시드는 사랑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안타까운 항구의 사나이  
부두(메크) 어간에 사나이 마도로스 굿 바이

이 노래에서 어간에란 뜻은 전라도 광양지방의 향토말을 보면 ~가운데, ~복판에란 뜻이다. 작사자는 중앙부분을 표기하기 위한 가사로 어간에인 사투리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조선공학 용어에 Amidships(屢)(선박의 중앙부에서)이란 뜻과 같을 것이다.

이 용어에 담긴 뜻을 찾기 위한 영어의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abed 여기서 a 는 (in bed, 침대안으로), aboard( on board, 선내에), abreast(with breast, 나란히 병행하여), afishing(to fishing, 낚시하러 가다), afoot(on foot, 도보로서), alee(to lee,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astern(on stern, 선미에), aweather(to weather, 바람이 불어 오는 쪽으로) 등의 예에서 보다시피 (...의위로, ...의안에서, ...쪽으로) 등의 뜻을 가진 접미사이다.

다음으로 -mid-는 middle(중앙)을 뜻하는 명사형으로 말할 것도 없이 라틴어인 medium(중앙)으로부터 온 말이다. 끝부분의 -ships에서 접두사 s는 소유격임을 표시하는 of ship의 뜻이다. 따라서 이들 세가지를 결합해 볼 때 amidships의 해석은 on the middle of ship(선박의 중앙부에서)란 뜻으로 부두중앙부근에서, 데크중앙부근에서와 같은 동일한 뜻일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나온 가사에는 야속스러운 사나이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아 작사자의 고향과 그때 그 시절의 시대상을 알 수 있고 가요팬들에게 가깝게 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이러한 가사전달은 75년 초부터 가사를 고쳐 편곡, 역사, 개사로 표기되어 다시불리워졌고 외국곡에 우리말 가사를 붙인 빈한 가요에 많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바다관련 노래라 할 수 있는 최백호 노래에 ‘낭만을 위하여’에서 낭만(浪漫)을 작사자들은 유행가 가사에 자유, 개성, 공상, 모험, 자연의 감정 등을 블루노트로 표현하여 바다는 생존의 뜨거운 현상이 아닌 한쪽의 동양화요 낭만의 수채화로 채색되게끔 켜즈, 탕고 노래에 많이 나타내었다. 사실 낭만(浪漫)이란 말은 실상 아무런 뜻도 지니지 못한 말이다. 유럽에서는 예술상의 한

경향에 로맨티시즘(Romanticism)이란 것이 있다. 한자쓰기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이 로맨티시즘을 낭만주의로 옮겨 적었다. 낭만을 일본의 한자음으로 읽으면 로망이 된다. 그러니까 낭만은 서양말 로망(Roman)을 그저 소리대로 적은 일본인들의 표기에 불과하다. 낭만을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으면 낭만이 되니까, 결국 원래 말인 로망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말이 생겼고 그 뜻을 제대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낭만, 낭만주의, 낭만적이란 말들이 널리 쓰이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버젓이 국어 사전에 올라 우리말 행세를 하게 되었다.

### 낭만에 대하여

#### 최백호 작사/ 작곡/ 노래/2절 가사

밤 늦은 항구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 지라도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느냐마는 웬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또한 노래 가사 속에 마도로스가 담겨있는 노래는 이별의 청춘항구, 항구의 눈물, 눈물의 부산항구, 충무항여객선, 항구의 0번지, 밤항구 연락선, 항구의 달밤, 내고향 항구, 항구의 트위스트 아가씨, 울어라 쌍고동( 박남포 작사/ 이봉명 작곡/ 남인수 노래)와 더불어

- 부두의 밤(김영일 작사 / 박시춘 작곡 / 남일해 노래)
- 바다 (김형림 작사 / 김부해 작곡 / 윤일로 노래)
- 선창가 (이철주 작사 / 라유평 작곡 / 이지희, 아리랑 시스터 노래)
- 고향의 그림자 (손로원 작사 / 박시춘 작곡 / 남인수 노래)
- 부두의 여인(송문헌 작사 / 작곡)
- 항구의 사나이(호심작사/ 김성근 작곡/ 최정룡노래)
- 울며헤어진 부산항(추미림작사/박시춘작곡/ 남인수노래)
- 쌍고동우는 항구(김영일작사 / 송운선 작곡/ 현철노래)
- 항구의 그날밤(동해봉 작사/ 라유평 작곡/ 비둘기 자매 노래)
- 이별의 인천항(새고천작사/전오승작곡/ 박경원노래)
- 나뭇배쳐너(김윤하작사/하기송작곡/ 최숙자노래)
- 항구이야(월건호작사/김화영작곡/황금심노래)
- 항구의 얼굴(손로원작사/박시춘작곡/홍순희노래)
- 안개건 부두(고려성작사/나화랑작곡/김사향노래)
- 이별의 여수항(호심작사/ 김성근작곡/ 강수희노래)

등이 있고 그 당시 연락선(문주란 노래, 목포항 관련)으로 부산→목포를 뱃길로 갈려면 부산 ↔여수까지 연락선을 타고 여수에서 목포로 가는 배는 그 당시 없었기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수항이 항수를 불러 일으키며 그 당시 여수-부산간의 금성호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마도로스 잘가세요' 비둘기 자매의 노래는 선장을 비롯하여 승객모두가 즐겨부르는 여수항노래였다. 도서지역주민을 위한 통학선, 병원선(G/T 50톤급)에 담긴 노래인 사랑에 뱃길 삼만리와 영화 주제가 피리블던 모녀 고개(반야월 작사/박시춘 작곡/황금심, 백설희 노래)가 함께 온 국민을 울렸던 시기도 이때이다.

그뿐이라 1967년 여수를 출항한 여객선(한일호)과 군함(충남호)이 가덕도 부근에서 충돌사고로 사망자 및 실종자 75명을 잃었으나 그 가운데 여객선에는 겁 팔이 소년, 구질인파 가난한 서민층의 죽음이라 보상과 관련된 사건이 그 당시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고 또한 해난심판소는 국내 일반선박에만 적용될 뿐 군함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에 또한번 서

민을 울렸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당국이 진해 군항기지구역내에 일반선박에 대한 운항을 중지시킨 조치도 이 시절(1967년 2월 8일)이다. 또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별장에 얽힌 에피소드와 진해하면 해군사관학교, 벚꽃놀이축제 등이 생각나지만 당시 진해해군공장은 어선을 가장한 북한의 고속간첩선을 격침시킨 선박을 인양 수리도하고 이러한 간첩선에 대처하기 위한 고속대간첩선을 건조하였고 경합급인 알미늄선박과 콘크리트선박이 대두되었던 시절이다. 그 후부터 코리아타코마(현 한진합병)가 관련선박을 건조하였고 요즘은 각 조선소의 특수선부에서 잠수함을 비롯하여 해군함정들을 건조하고있다. 그리고 현재 그곳에는 대동조선주식회사 가 우뚝 서있다.

### 이별의 여수항

(토심 작사 / 김성근 작곡 / 강수희 노래)

잘 가세요 잘 있어요 파도치는 여수항  
 쌍고동 외고동이 나를 우리네  
 이슬비 안개속에 테프를 끊고  
 떠나가네 사나이야 마도로스야

이와 같이 노래가사에 나오는 마도로스는 한시대 유행의 첨단으로 상징되는 복장에서부터 지그시 파이프(pipe, whistle, flute)를 물고 트럼을 내리는 검은테 안경의 바다사나이, 유랑 극단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은 대개가 그런 부류의 눈물이 많은 사나이였다. 파이프에 꿈을 실은 마도로스는 사실 아직도 소금끼가 풍기는 듯한 풋풋한 젊음과 이국의 항구에서 묻혀온 세련된 메너의 젊은 사관들로 여성들의 탄식을 쏟아놓기에 그 당시 큐피트의 화살표적으로 충분했다. 생사를 초극한 듯한 배짱과 자신감, 가슴이 유난히도 넓어 보이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의 마도로스 다시 상상해봐도 그 시대의 마도로스는 능히 넘버원 머스마(사내)였던 것은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항구는 언제나 여인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재회를 굳게 다짐하며 이별의 손수건을 흔들는 덧없는 약속이 있기도 했지만, 그여인은 이미 '에레나가 된 순희'(손로원 작사 / 한복남 작곡 / 안다성 노래)로 운명이 바뀌어진 사연이 그때 그 시절이다. 항구는 마도로스와 함께 대중가요의 생명인 간판역할을 하여왔다. 옛부터 港이란 글자 그대로 水(水,물)과 巷間(市街의 뜻)이 합해진 것으로 水間이 어원이 되었다고도 한다.

어떻든 수역에의 창구라는 의미이므로 노래가사에 많이 나온다. 영어로 port이나 이는 라틴어의 portus에서 나온 말로 문(間)이라는 의미이다. 유럽인들의 항의 개념은 바다에의 문, 또는 바다에서 건너온 경우 육지에로의 문으로, 잔교입구에 훌륭한 문을 세우고 있는 유명한 항이 세계 도처에 있다. 인도의 봄베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영국, 네덜란드 항에 훌륭한 문이 있는 것은 흥미롭고 이문이 바로 바다의 국력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우리의 국제항이라는 문은 초라하기 그지 없다.

문이라는 사고에서 자동적으로 후방권(hinter land), 전방권(fore land)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깊은 내륙에의 기점(origine)과 종점(terminal)이 생기었으며 항이라는 생각에서 철도의 종착지이며 동시에 하천교통의 기착지로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생긴 연유가 된다. 유럽에서는 항만을 철도회사가 개발한 예가 많은 것이 이 까닭이다. 이와 같이 항의 기본 역할은 옛이나 지금이나 바뀌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한 가정집으로 본다면 항은 주방 즉 부엌

이다. 옛날에는 현관인 동시에 주방문이 항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관이 없어도 가정생활은 성립되지만 주방이 없으면 물 한컵 마실수 없다는 것으로서 항의 중요성과 그리고 灣은 하천이나 해안가운데 움푹들어간 곳을 지칭하는 의미요소이며 옛날 그대로 아무런 지위 변동이 없어 바다관련 노래에 단골 단어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항이 갖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승객이나 화물을 적재해온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계류하게 되고 여기서 승객이나 화물의 적상, 적하를 운송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까닭은 거액의 비용으로 방파제를 건설하고 거칠은 풍랑을 방지하는 암벽을 설치해서 항 내의 수면 상태를 유지하며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도로스와 항에 연결된 대중가요의 대표곡은 정재은 노래와 이성애 노래로된 항구이다. 그러나 항구에서 노동을 하는 荷役夫를 노래한 가요는 없지만 金芝鄕의 시는 다음과 같다.

**난간에 심어진 사람들 / 빛에 뜬 김서린 바다  
발류인 몇 개의 배를 뺐 / 얼리기 시작한 埠頭**

우리나라 항을 주제로한 가요는 많이 있지만 특히 군산항에 관련된 노래는 오직 하나뿐인 울며헤진 군산항(월강 작사/송운선 작곡/박재년 노래)이 있고 군산 시민의 애창곡이며 마산(항)의 노래(길옥윤 작사/작곡/ 해은희 노래)는 마산시민의 애창곡이기도 하다. 그리고 인천항은 감문독크로 항만사의 신기원이다.

**항구**

김석천 작사/ 이제호 작곡/ 이성애 노래

항구는 정열이냐 기분찾는 항구드냐  
낯설은 마도로스 옷음속에 배가 진다.  
잘가오 다시오마 오색테프 멀어지면  
이 술집 쩌 술잔 그 노래가 뽕겨워라  
갈매기도 너울너울 뽕을 주는 항구야

**6. 도약기(Jump)**

1876년 부산항이 개항되고 인천항(1883년),목포(1887년),군산(1899년)항이 차례로 개항되었고 부산항 부두에는 중앙부두를 포함하여 제1~8부두까지 있는데 대중가요 가사에는 아직까지 제1,2,3부두의 가사만 있다. 부산항 제3부두(김호문 작사/김형우 작곡/계은숙 노래) 노래 제목과 뱃고동 소리(황우루 작사/ 송춘희 노래)가사의 부산(인천)항 제1부두와 아메리칸 마도로스(김진경 작사/고봉산 작곡)의 가사중에서 부산항 제2부두가 눈에 띄이는 것도 항과 철도의 관계로 1905년 연락선이란 단어를 만들어냈다.

즉 이유는 연도를 추정해 보면 그 시절 부두 매립, 확장공사에 따른 판자촌 철거민들의 애원에서 넘파 가족 그리고 오누이의 헤어짐을 그 당시 작사가의 삶의 세월속에서 노랫말이 나온 것으로 제1부두 1977년(1912년), 제2부두 1979년(1927년), 중앙부두 1944년, 제3부두 1941년, 제4 부두 1943년, 제5~8부두 (1978년~)로 추정되며 공부에 뜻을 둔 십아가씨 영애

(令愛, your (his)(esteemed) daughter)도 가난한 삶을 던지고 돈을 벌여 야간학교를 다니기 위해 도시로 나온 시기이기에 이 시절 '바다가 육지라면' (정귀문 작사/ 이인권 작곡)과 더불어 서민성, 소박함이 노래속에 느낀대로 가식없이 표현된 것으로 대표적인 노래는 '비나리는 부두'(반야월 작사/ 나하랑 작곡/ 남일혜 노래)이다. 부산은 항만 하역사업에 약 100개 업체와 컨테이너 부두가 있고 1998년 새로이 완성된 부산 연안 여객 터미널과 국제여객 터미널에 고려훼리, 부관훼리, 한국고속해운, 대하고속(부산-대마도)이 있다.

이러한 항구/배/부두에 관련된 변형개념을 수학적인 수리 통사론 방법으로 나타낸 개념은 수학자 이언스튜어트(Ian Stewart)는 그의 저서 Nature's numbers(한국판:자연의 수학적 본성)란 책에서 배/부두(SHIP/DOCK)정리에서 SHIP를 한번에 글자 하나씩을 바꾸면서 매 단계마다 의미를 만들며 다른 단어를 대면서 최종적으로 전혀 다른 DOCK의 詩語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모든 해가 한가지 공통점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공통점이란 중간단계의 단어들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두 개의 모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정리를 보아도 배와 부두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즉 SHIP-SLIP-SLOP-SLOT-SOOT-LOOT-LOOK-LOCK-DOCK인 수리언어학에서 추상적 자동튜링기계의 해법이다.

마도로스, 그는 떠나야만 이별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보헤미안적인 시인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배를 타고 있는 마도로스들, 그들은 이미 이별을 즐기는 고독한 시인이다. 이 같이 마도로스에 관한 대중가요는 50년대에서 70년대 중반까지 주로 많이 나와 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여기서 해원(Sailor, Seaman : 수부, 뱃사람) 또는 선원(Crew)의 뜻을 가진 영어 마도로스(Matelot)는 직접적으로 네덜란드의 Matros에서 온 말이다. 선원, 해원의 두 말은 약간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별해서 사용한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이라 하면 선장을 포함한 것이고 해원은 선장을 포함하지 않은 그 이외의 자들만을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船長(Mater)를 캡틴((Captain)해군대령계급)이라고 마도로스와 혼동하여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Matster" of a ship이고 캐프틴이라는 용어는 예우상의 호칭이며 엄격히해군의 계급으로서 선장 외의 선원을 총칭하여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 위생부, 해원 등으로 구분된다. 영어의 Matelot는 원래 게르만계의 언어이며 독일어인 Matros, 스웨덴 또는 덴마크의 Matroos는 중세 네덜란드어인 Mattenoot(Matte + Noot)에서 온 말이다.

Matte는 독일어 Meat 및 영어인 Mate(상선의 항해사)와 같은 뜻으로 식사를 같이 하는 동료란 뜻이고 Noot는 독일어인 Genosse와 같은 뜻으로 역시 식사를 같이하는 동료란 뜻이다.

식사를 같이하는 동료란 뜻의 마도로스란 한정된 배라는 공간에서 생사를 던지고 험한 바다로 항해하므로 공동운명체 상황에서 삶의 객관적 순리를 찾아야 하고 마도로스 입장은 의리가 생명일 수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생사를 초극하는 삶의 숨가쁜 벼랑 앞에 공동운명체란 적막함을 다 함께 경험하기 때문이다. 마도로스라면 당연히 조난의 경험은 겪을 수 있으며, 이 조난의 현실적인 삶의 의미는 다함께 살아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바다관련 대중가요중에서 마도로스 직업과 선박건조직업을 잘 나타낸 노래가사에는 '항구의 심청이'이란 가요가 있다. 이 설화 소설과 창(唱, 소리)과 마니리(이야기)로 엮은 판소리 심청가와 가요 심청전(최지수 작사/김성근 작곡/남백송 노래), 효녀 심청(성호민 작사 / 마상원 작곡/ 김부자 노래)은 유불사상이 배합된 작품으로 대송원풍 연간에 황해도 황주군 도화동에서 산 청의 아버지 심학규는 이 고장에서 손 뜯던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나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하는 집안으로 명망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차츰 가문이 기울며 자손이 귀하 여지더니 눈 먼채 이 세상에 오직 혼자 남게되어 아내 곽씨와 결혼하였으나 노래의 내용으로 보아 눈이 멀기 전의 젊은 날의 직업을 알 수 있다. 1절가사, 웅감한 바다의 선장에서 보면 그 당시 무동력 목선선택으로 고기를 잡는 어선장인 마도로스인 船頭小唄였을 것이고 2절가사, 유명한 바다의 용사(brave)에서 보면 목선을 건조하는 유명한 혹은 숙련된 선장(船匠, a ship carpenter, a shipwright)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항구의 심청이

아시아레코드사에서 발췌 / 황정자 노래  
(최지수 작사/라옴파 작곡/오은주 노래)

- 1, 앞뚝보는 우리 아버지 쌍고동이 울적마다  
문설주에 기대시고 그소리 들으시네  
지난 날에 용감한 바다의 선장  
뜬 세상 보이는 오막살이 초가집에  
항구의 심청이는 아버지가 불쌍해요
- 2, 지팽이를 의지하고서 바다 소리 들으시며  
아버지는 힘없이 생각에 잠기시네.  
지난 날의 유명한 바다의 용사  
불쌍한 여생에 아버지를 섬기면서  
항구의 심청이는 시집일랑 안 갈래요

※문설주(a doorjamb, gatepost) 항구의 이름은 송림항이다.

이 노래는 억지에 가까운 가사나 우스꽝스럽고 어색할 만큼의 가사로 나열되어 있지만 해운과 선박과 선원사명을 인식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겠다. 바다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상선을 보고 하루에 고기를 얼마나 잡느냐는 질문을 하면 바다관련자는 아연질색할 수 밖에 없다. 몇 톤짜리 어선이나 유람선의 선장과 몇 십만톤의 거대한 선박의 선장을 선장이라는 어구(語句)의 동일성으로 그 차이를 분별못하는 대중가요 작사자를 볼때는 해양사상의 어구심이 한심스럽고 언론사의 기사도 구별되어야 한다.

즉 船長을 船頭 혹은 漁撈長(fishing grounds)-船遊長(boating grounds), 船員을 漁夫(fisher(man))-遊覽員(boatel man)으로 표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당시 선박은和木船 아닌 韓船인 마생이배와 황포돛배에서 거룻배, 야거리, 당도리, 나룻배, 주낙배, 낙시거루, 꽃것배(새우잡이배) 등으로 특히 목포의 달밤(반야월 작사/ 고봉산 작곡/ 하춘화 노래)에 木船이란 가사가 나오며 작가 한승원의 소설 木船 또한 바다의 형태적 반응을 나타내며 또한 1963년 부산종합어시장은 수산협회단체 발족과 1965년 한일어업협정(12월 18일) 이 후 FRP선과 각종 특수선들이 나왔다.

이와같이 마도로스를 군대에서는 육·공·해병대를 장군(General)이라고 해군제독의 뜻인 애드미럴(Admiral)은 함대를 지휘하는 간부사관을 애드미럴(함대의 항해사)이라 불렀다.

이는 원래 아라비아 말로 왕자 또는 지위자를 의미 하는 애밀(Amir)이 그 어원이다.

12세기 경에는 이슬람제국에서 함대 사령관을 아밀알마르(Amir - al - babr)라 했고 영국에서는 해군 총독부 장관을 로드애드미럴이라 불렀다.

오늘날 선박설계에서 선박의 저항성능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무차원 계수 인 애드미럴리계수(Admiralty/Coefficient : Cad)도 이와 관련이 있고 해군계수라고도 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다.

$$\text{즉 } Cad = (\Delta^{2/3}) \times (V^3) / HP$$

Δ : 배수량, V = 선속, HP = 선속 V에서 대응하는 마력

영국과 네델란드 전쟁시대에는 함대를 지휘하는 포스트로서 9계급의 애드미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현재 우리의 해군계급은 준사관을 포함하여 11계급이다) 그들의 총칭으로 플랙오 피서(Flag officer) 즉 함대를 Blue, White, Red으로 나누고 각대를 다시 3분하여 9대의 전대

로 구분하고 자기보직을 갖지 않는 장관은 황색(Yellow) 애드미럴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황색이 전염병 발생으로 격리할 때 쓰는 신호기의 색깔(배의 신호기는 세계 공통이며 백색, 적색, 황색, 청색, 흑색이다)이었기 때문에 눈물의 노란 손수건은 이별을 뜻하는지도 모른다.

바다에 관련된 색체를 보면 해군의 색은 청색 백색이고 견식줄(aiguillette)의 색은 파란색과 금색, 해병대는 빨간색(빨간모자= 수영초보자)과 금색이고 해군사병 복장의 깃, 잠바, 나팔바지에 세 개의 색줄을 두르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그리고 바다가 푸르게 보이므로 바다관련 유행가 가사에는 푸른색과 빙카(periwinkle, 불그스름한 푸른빛)로 표기하고 흰백색의 흰색 기원인 白晝를 바다와 관련된 부분만 찾아보면 이 말의 기원은 영국정부의 공식문서에서 비롯되었고 17세기 영국에서는 정부보고서나 항해일지(logbook) 보고서에 흰 표지와 푸른 표지를 붙인 유래에서 나왔기에 하얀 사관제복이 바다관련 유행가 가사에 흰색으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바다관련 노래가사의 색을 컴퓨터 시뮬레이션하여 본 결과 굿 그림인 두레굿과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고 즉 적(살아나기) 청(새롭기) 황(부르익기) 흑(무너지기) 백(돌아가기)으로 구분되며 또한 赤(악마: Demon), 靑(건달: Hoodlum), 黃(매춘: Prostitution), 黑(소굴: Den), 白(마약: Narcotic)은 幫과 연결되어 유행가에 색을 가미한 색조(HUE)인 것이며 해적선(Pirate ship)표기이다. 모든 가요의 노래가사에는 제목(작사/ 작곡/ 노래/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에 昔·今의 船 색체에 관한 알고리즘은 버블 쇼트(Bubble Sort)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모든 LP나 CD의 노래가사에는 제목(작사/ 작곡/ 노래/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에 숫자를 찾기위해 숫자=KEY 로 하여 자료검색되도록하여 노래방 기기와 접속시켜 컴퓨터로 옛날 축음기(GRAMOPHONE)에 연결하여 옛 노래를 들을 수 있다.

```

K=n
CMDRS=1
WHILE(MDRS>0) DO
K=K-1
CMDRS=0
    FOR I=1 TO K DO
        CALL(곡명, 가사, 색깔)
        CALL(색깔, 선박, 마도로스)
        IF K(J)>K(J+1) THEN DO
            R(J)-R(J+1)
    CMDRS=1
    ENDIF
    ENDWHILE
    ENDBUBBLESORT
@CMDRS=#칼라 마도로스 약자
    
```

그리고 배롱나무의 일종인 백일홍(초)(百日紅, A Crape - myrtle, Zinnia, Youth - and - old age)은 해양관련 노래가사에 표기한 것은 마도로스의 하얀 사관제복의 옷소매에 꽃잎무늬와 모자의 꽃잎 무늬에 백일홍을 그린것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바다에 관련된 바람소리 즉 통속적으로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과 같은 어원에서 유행가 가사는 빨간색으로 표기되며 백일홍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대중가요는 '선창'과 '화물선 사랑'의 노랫말이다.



선 창

(고명기작사/이봉룡작곡/ 고운봉노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비린내 나는 부돗가에 이슬맺힌 백일홍  
그대와 들어서 꽃씨를 심던 그날도  
지금은 어메로 갔나 찬비만 내린다.

화물선사랑

(추미림작사/이재호작곡/진방남노래/남일해노래)

1. 간다 간다 떠난항구 안개속에 이 항구  
화물선뱃머리에 울어대던 그 처녀  
울지마라 고통아 네가 울며는  
메달리던 그 처녀가 다시 그림다.
2. 온다 온다 떠난 부두 사랑맺힌 그 부두  
두 토막 옷소매에 백일홍을 그렸오  
울지마라 물새야 네가 울며는  
백일홍 옷소매가 눈물젖는다.

그 시절 극장쇼에서 화물선사랑의 후렴대사는 “라드여드 키플링”(Radyard kipling)의 ‘닷 노래’ 일부와 작사자의 글을 합쳐 해설, 시, 낭독으로 유기현, 이창완, 고은정을 비롯하여 가수 황순덕이 사람의 감정을 울렸다.

헤이! 키를 돌려라 닷을 감아라. 닷을 감아라.  
화물선 이물(뱃머리)난간에 매달려 울지마라  
몸부림을 치지마라 창파에 던진 사나이  
술병을 내려놓고 아가씨도 무릎에서 내려 놓아라.  
닷을 울리는 순간 두토막 옷소매에 백일홍을 그려주마  
간다는 이별이 미압이나 온다는 기약이 미뒤나  
화물선 고물에서 울어대던 그 처녀! 돛대보고 손짓하네  
울지마라 ~ 네가 울면 떠나가는 마도로스 가슴아프다.  
아, 정말 떠나는가. 다시 배를 끌고 나가야 하는구나  
빈 배로 떠나간다 정박등 불끄고 뱃짐도 없이  
큰 밧줄 계주에 동여맬 때 떠나갈 시간이다.  
앞돛 한판서 풀어주고 바다의 희망 안겨주리로다.

이 대사에서 표기된 조선용어는 다음과 같다.

- 이물 - 뱃머리 - 艀板 - 船首(頭) - Bow(Stem) - Prow(詩語)
- 고물 - 배뒷진 - 舳板 - 船尾 - Stern
- 미압 - 左舷 - Port
- 미 뒤 - 右舷 - Starboard
- 난간 - 舷薈 - Bulwark
- 닷 - 碇 - 錨 - Anchor
- 돛대 - 航柱 - Mast
- 창파 - 滄波 - Big waves(green sea)
- 키,타 - 舵 - Rudder
- 한판 - 腰 - 船體 中央部 - Midship

또한 화물선 사랑 노래는 커플링의 <정기선은 귀부인이다(The liner she's a lady)>詩에서 작사자는 정기선(liner)이 군함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부정기선(tranper)인 화물선으로 이 노래 제목을 만들었고 선창가, 부둣가, 바닷가 같은 노래 제목에 '가'(가장자리, the edge, verge, brink, brim friage, 끝 the end, limit, bounds)의 의미인 Bound는 또 다른 이민선(移民船)을 만들어 내었다. A ship is bound for a certain port(선박은 어느 항을 향하여 항해 중이다)에서 bound는 ...행의 , ...향하여 뜻이므로 우리가 흔히 쓰는 homeward bound는 본국행 또는 기항의 뜻으로 들어오는 것 즉 immigrant ship이고 outward bound는 외국행 또는 외항의 뜻으로 나가는 것 즉 emigrant ship이며 때때로 이것은 타계 또는 사망의 뜻으로도 쓰인다. 또 다른 이주·해외이민의 실상인 이민선(移民船)과 세관업무에 따른 밀수선, 감시선과 치안과 해양오염인 각종 사고사건처리에 해양경찰 바다사나이 위상을 만들어 내었다.

1976년 해운항만청(현 해양수산부)이 창설된이래 세계적으로 우수한 선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부산, 목포, 인천에 선원학교(목포해대, 부산,인천해사고등학교)를 설립하였고 특히 여기서 선원 혹은 마도로스하면 한국해양대학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외항의 파수병역을 맡은 오륙도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조도, 그 속에 웅자를 드러내며 오늘의 해양한국의 길잡이들이던 마도로스와 조선해양관련 기술자를 길러낸 국내유일의 교육기관으로 해방과 더불어 설립되어 해양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1968년 국민교육헌장선포 후 한때는 해기사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학교(74년3월 개교-78년 4기까지)까지 설립하여 졸업생 737명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시절 피, 땀, 눈물로 쓴 마도로스 사연이 담긴 노래의 내용 증거가 없는 해양대 박물관의 성적표는 F학점이다.

朝島瞰臨海洋大  
海國黎明昔此始  
船歌生氣復新開  
心泰遙看歸航船

조도섬 내려다 보는 해양대  
바다나라 새벽이 옛날 여기서 시작되니  
마도로스노래의 생기 이제부터 일어나다  
부산항구 찾아 돌아오는 배 멀리보고 마음놓으리

한국해양대학교를 표현할 수 있는 漢詩(朴命圭 지음)와 같이 마도로스의 선원실습을 위하여 1959년 12월 대한해운공사 화물선 금천호를 인도받아 1960년 12월 14일 개조공사가 완료되어 대한조선공사(현한진중공업) 의장부두에서 당시 윤보선 대통령 입석하에 반도호로 명명되어 하와이로 출항하게 되어 해양대 실습선 반도호의 시대가 열렸고 1974년 부산 - 목호 무연탄 수송을 끝으로 폐선되었지만 이시기가 바로 마도로스의 전성기이고 그 후 1980년 한국해양소년단 설립과 1982년 문교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해양탐구생활로 해양정서를 고취시켰고 1991년 바다는 우리 모두의 생명선이란 구호아래 종합대학교로 승격하였다. 초창기 해대생하면 실습선의 노래인 12절로된 노래가 있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 남일해 노래 메리퀵부두인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 1957년부터 10년계획)에서 매콩강 개발계획과 베트남 전쟁에서 물자수송부두인 메리귀(mergui)를 작사자는 로마표기인 메리퀵으로 음성표기로 한 발음이며 이 노래의 가사가 그 시절 기숙사 생활의 정서가 담겨있다.

### 메리켄부두

(손로원 작사 / 백영호 작곡 / 남일해 노래)

메리켄 밤항구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스라핀 이별보다 쓰디쓴 담배연기  
길게 켜는 메리켄 저 부두에 떠나가는  
아메리카 상선에 매달려 느껴올던 그 사람을  
바다위에 버려야지 메리켄 로맨스

또한 매콩강 아가씨(이용일 작사 / 백영호 작곡 / 문주란 노래)와 맞아 떨어졌기에 많이 불렀고 해대맨이던 누구나 교가(이은상 작사 / 이홍열 작곡)를 제창한다. 대중가요도 이 당시에 '무역선 아가씨', '쌍고동우는 항구' 등의 유행가가 마도로스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대중과 함께 불리어졌다. 그리고 해대관련 배우와 관련된 詩는 '荷役夫'(金之鄕 지음)와 한진그룹 회장(해양대 공학박사 취득)의 '검은 선'(趙重勳 지음)등과 지금은 반도호에 이어 1975년 10월 실습선 한바다호와 1994년 2월 실습선 한나라호가 지금도 마도로스의 꿈을 키우고 있다.

### 실습선의 노래

이준수 작사 / 해대생 노래 / 12절중 8절가사임  
해대 응원가 및 기숙사 노래(요가)

아가씨도 소용없는 해대생에게  
윙크하는 아가씨를 어이 하리가  
황파는 우리의 벗 우리의 사랑  
선수에 부딪치는 파도소리는  
달콤한 애인의 세레나데

응원가나 기숙사노래에 관한 시대적 배경에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창가가 군가조로 바뀌었고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앵카(演歌) 조의 군가도 등장하면서 생겨났고 특히 이시절 학생들은 료오카(寮歌:기숙사노래)를 만들어 유행시켰는데 이로써 청년구락부 앵카의 본부였던 시대(1902년)을 이론적으로 있었고 그 후 1930년 이후에는 앵카를 艶歌라고 하여 억압된 감정의 하소연, 현실도피, 남녀간의 사랑, 이별, 눈물, 한숨 같은 염세적センチ테리즘의 변신이였기 때문에 바다관련 마도로스 노래의 연관성을 이루고 있다.

### 무역선 아가씨

(이철수 작사 / 라음파 작곡 / 이미성 노래)

틀렝되는 뱃머리 쌍고동아 울어라  
항구까지 이십리 길 가슴이 설렌다  
항구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언제나 나를 불러 손짓하느냐  
마도로스파이프에~~~(마도로스 마후라)  
옴탄다탄탄 무역선 아가씨

이 노래의 가사 마도로스 마후라에서 하늘의 사나이 빨간 마후라(한운사 작사/ 황문평 작곡/ 자니 브라더스 노래)를 기억 할 것이다. 1964년 극영화로 발표되었던 주제가이며 MBC 라디오 드라마때는 극중의 여주인공 강릉 아가씨의 사랑노래가 테마이었다. 신상옥 감독이 촬영도중 제트기의 파일럿(pilot)를 상징하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아방송국에서 입상한 남성 4중창단인 자니 브라더스가 즉석 녹음으로 완성한 것으로 히트하여 대중가요로서 공군의 대표작이 되었다. 그런데 바다의 왕중왕이라 할 수 있는 바다 사나이들의 파일럿(도선사, 수로 안내원)을 상징하는 노래가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도선사들이 정든님을 도선사로 바꿔 즐겨 불렀다는 노래가 '쌍고동 우는 항구'이며 1970년말에는 마도로스를 외항선부로 가사를 바꾸어 불렀고 대표적인 가수는 조미미이다.

### 쌍고동 우는 항구

(김영일 작사 / 송윤선 작곡 / 남백송, 은방울 자매 노래)

쌍고동이 울어대면 갈매기도 울었다네  
 마도로스 사랑이란 이별도 많뜨란다  
 파이프 입에 물고 잘 있거라 손짓하면  
 정든님(도선사)도 울었다네 갈매기도 울었다네

도선사의 자격요건은 대체로 선장면장소유, 선장승선경력 이 있어야 하므로 결국 마도로스 연장선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박의 안전항행을 확보함에 있고 나아가 선박의 운항능력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함에 있다. 도선사는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개인사업자이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하여 도선료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도선료의 결정에는 톤수 결정에 상당히 복잡한 수식을 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총톤수×홀수)기준이다.

또한 총 톤수를 살펴보면 배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배는 몇 톤이나 됩니까하는 질문을 한다. 선박에서 사용되는 톤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낼때에는 총톤수를 사용한다. 총톤수는 중량으로서의 톤 수가 아니라 약 2.8입방미터의 공간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선박관련자 이외에는 아주 드물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기는 1Kg의 천배, 즉 천Kg의 무게를 1톤이라하였다. 그러나 배에서 말하는 톤 혹은 톤수(Tonnage)는 좀 색깔이 다른 것이다.

옛날 영국에서는 배의 크기에 따라 징수되는 그 기준으로서 술통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때 통용되고 있던 술통의 용량이 252갈론으로 이 속에 술을 채우면 그 무게가 2200파운드라고 하니 상당히 무거웠던 것이다. 이 술통이 비어있을 때에 두드리면 탄탄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톤이라는 말이 생겼고 그 한 개의 무게가 톤의 단위로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전한다. 이 술통의 내용물에서 영국의 전통술 스카치 위스키가 생긴 것이며 한국의 소주(막걸리), 중국의 고량주(빼갈) 일본의 무사무내(정종), 프랑스의 꼬냑, 러시아의 보드카, 멕시코의 데킬라란 전통술과 더불어 독일의 정통술 맥주 즉 생맥주(Draft beer)와 홀수(Draft)의 의미는 같은 어원으로된 용어에서 표현된 것이고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제도에 생맥주로 부라보하였다는 말에서 드래프트 시스템(draft system)인 스포츠 용어도 생겨났다.

즉 일정한 기준하에 입단할 선수들을 모은 뒤, 각팀의 대표가 선발회를 구성, 일괄적으로 교섭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마도로스 노래에는 이십리길, 백리길, 천리길(땃목 이천리노래),

만리길 같은 단어의 흥미는 바다관련노래에 많이 나타나 있고 특히 천리길은 서울-진주까지의 거리로 나탈낼 때 많이 나타나며 대중가요를 영화화한 영화주제가 진주는 천리길(천봉 작사/ 한복남 작곡/ 황금심(은주의 노래)/ 손인호(원출의 노래))이 대표곡이며 또한 백리길은 마라톤 경주 100리(42.195Km)의 반환점(turning point)에 관련된 내용에 주로 사용하였다. 선박이나 바다관련 낱말에서 선속을 노트(knot)로 표시하는 것은 예전에는 측정표(longline)란 기기를 가지고 노트에서 추출되었던 숫자로서 선속을 알았기 때문에 즉 7m마다 노트를 하나씩 증가하게 한 이유에서 나왔고 선속 1노트인 선박은 14초에 7.2m(1852m×14/3600=7.2m)로 진행하기 때문이며 14초의 기준은 모래시계의 모래낙하 시간이 14초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와같이 선박의 속력은 1시간에 항주하는 이동거리이며 浬(海里)를 단위로 하고 노트를 표시한 것이므로 1노트는 6080呎(feet), 1해리(A Nautical Mile) 즉 Admiralty Mile은 1852m이다.

$$\begin{aligned} 1\text{m/sec} &= 1.9438\text{노트(해상)} \\ &= 2.2369\text{mile(浬)}/\text{hour(육상)} \end{aligned}$$

이와 같이 이십리길이 8.5km임을 계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가요 가사에는 십리길 즉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로 20리 길 가사로 더욱더 가까운 거리임을 강조한 것 같다. 선박 역시 정치 사회 경제적인 존재인 이상 그 시대 주변사정이나 세월 따라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세월을 타는 것도 불가피한 것이다.

오늘날 테크노 슈퍼 라이너(TSL, Techno-super liner) 선박이 파랑 급수 6에서도 항해 가능하고 항속거리 500해리에 속력 50노트(시속 약93Km)의 신형의 초고속 선박이 개발되었고, 해면 효과 익선(WIG, Wing in ground effect, 시속 200-500Km) 초전도 전자 추진선(MADS, Magneto hydro dynamic ship, 100노트)등의 선박이 개발중에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바다관련 대중가요는 속도에 포인트를 맞춘 노래가 나올 것이며 크루즈로 금강산 구경가고 고속정으로 대마도 구경가는 선박관련 노래도 나올 것이다.

또한 운항 선박의 생산 효율성의 대표적인 지표인 tonmile/DW은 운항선박의 1DW(재화중량)가 적하수송 해낸 화물의 ton×mile을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조선재료 고장력강으로 강판두께 5밀리미터 정도 조절하여 배의 배수량 13%나 줄여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배의 전체 중량과 적재량간에는 1 대 3의 비율이 성립되는데 배의 무게를 10% 줄이면 30% 정도의 추가 적재한 효율성은 비만여성이 수영이나 약보다도 DW를 알면 자기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일의 표주간 거리는 이정표(월건초 작사/ 나화량 작곡/ 남일해 노래), 이정표 없는 거리(이인선 작사/ 정민섭 작곡/ 김상진 노래)란 노래를 만들어 내었고 많은 유행하였다. 결국 마일 포스트(mile post)인 표주간의 이정표인 선박 시운전은 1930년경 영도다리 부근 마일 포스트에서 시작하였고 다시 1937년도에 표주(이 무렵부터 신조선이 이루어졌다)는 신선동 3가 바닷가 위에 1포스트, 동삼동 주개공 아파트에 2포스트, 태종대 병풍마위 위에 3포스트에서 선박 시운전을 하였으나 개발과 건물에 물혀 사라지고 대한조선공사는 1971년 새로이 경남 거제 지신도에 설치하였고 1973년 현대중공업은 경남 울산 미포에 설치하였고 1984년 신하조선은 경남통영에 설치하여 수로국해도에 공인을 받아 시운전을 하고 있으나 요즘은 전자추적장치와 위치결정장치와 더불어 아날로그식 속력측정방법으로 시운전을 하고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삶과 마일 포스트는 조선 한국의 발전과정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나온 하나의 이정표인 나침판(김상길 작사/ 이유림 작곡/ 설운도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887년(고종 24년) 조선왕조의 쇠퇴기에 외국인에 의하여 설립된 최초의 목선조선소 발자국을 찾아 남기는 사업의 이정표 하나는 1989년 11월 영도 대평 초등학교 교정에 한국근대조선발생유적지 기념비를 건립하였지만 추억어린 그 곳에 다 바다관련 노래비도 하나쯤 있을 만 하다고 생각된다.

## 7. 쇠퇴기(Weakness)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부터 선원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의 하나로 거의 천민과 다름없는 지위에 놓여있는 계층으로 분류되어 이로 인해 국민들은 선원을 뱃놈, 갯놈, 생선 뱃대지 따먹는놈 등으로 평가하고 바다와 관련되거나 바다를 가까이하는 생활 까지도 기피하였다. 무심코 쓰는 말로서 직업을 나타내는 놈자가 붙은 것은 아마 바다관련 밖에 없을 것이다. 사전에 따르면 놈의 옛 뜻은 보통사람이고 원래의 뜻은 사내의 낮춤이다. 언혁적으로는 선원의 천시적 표현이다. IMF이후 많은 변화가 해양관련 위상을 높였지만 항구 문화의 주체가 돼야할 선원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원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하며 복지를 위하여 전국항만에 건립된 선원회관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 나가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낮은 선원직업 인식도가 선원 복지 정책에서도 서구국가와 다르게 나타나며 결국 이에 대한 투자와 문화적 노력에도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작용하므로 정부 또는 해양수산부나 해양관련 학교들이 잘 이끌어 나가야 한다. 70년 후반으로부터 80년 초에 이르는 세계해운계는 STCW협약의 기간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함으로서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재산의 안정과 해양환경의 보안을 달성하고자 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노력은 STCW협약의 성립과 함께 선원 해외 송출바람은 75년 경 그 절정을 이루어 모두 달리를 건지기 위해 송출선으로 몰려나가 해기사의 값이 금값이던 전성기 세대인 70년대 말까지 마도로스 노래는 국민의 사랑과 각광을 받았지만 1979년 말 부마항쟁과 더불어 80년대 부터는 마도로스와 관련하여 바다 노래 가사에 마도로스를 제외시킨 대중가요의 노래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노래는 정재은이 부른 항구(고봉산 작사 / 작곡), 연락선 (반야월 작사 / 고봉산 작곡), 뱃고동 소리 (황우투 작곡), 외항선 부두 (윤익삼 작사 / 고봉산 작곡)등이 있다. 만약 외항선 부두 노래가 70년대에 작사되었다면 ‘뱃사람’대신 가사를 마도로스로 하였을 것이다.

### 외항선 부두 (( )안은 2절 가사)

(윤익삼 작사/ 고봉산 작곡/ 정재은 노래)

검푸른 파도 위에 갈매기떼 춤을 춘다.(꽃 구름 하늘 아래)  
오가는 외항선들 깃발도 눈부시네.(수평선 넘어 외항선 찾아 드네)  
 낚설은 뱃사람이 뿔파람 불며는 (손짓을 하며는)  
 뱃머리 부딪가엔 꽃물결 친다. 아~ 항구의 아가씨  
멀리서 오셨군요, 다음에 또 오세요.(오셔서 반갑군요 즐겁게 놀다 가요)  
 뱃사람은 뱃사람은 정말 멋져.

그 외에 고향으로 가는 배(나훈아 노래), 외로운 항해(김혁 노래), 잘 있거라 연락선아(김미성 노래), 사공 아줌마(최정자 노래), 배 떠나가네(방주연 노래), 비나리는 항구(방태원 노래)와 특히 떠나는 배(조용필 노래)는 50년대 이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詩로 중,고등학교시절에 배운 작품 박용철의 시작품이다. 그외의 노래를 간추려 보면

떠나가는 돛단배(정두수 작사/ 박영선 작곡/ 은방울 자매 노래)  
 모정의 뱃길(엄포 작사/ 송윤선 작곡/ 안복순 노래)  
 동대불 하소연(반야월 작사/ 심성탁 작곡/ 최유진 노래)  
 초량동 45연지(배창정 작사/ 작곡/ 후랑크백 노래)  
 무정한 그사람(반야월 작사/ 송윤선 작곡/ 정화순 노래)  
 떠난 연락선 (김운영 작사/ 라윌파 작곡/ 오은주 노래)  
 떠나가는 배(정두수 작사/ 라윌파 작곡/ 오은주 노래)  
 항구는 슬더라(남국인 작사/ 백영호 작곡/ 이미지 노래)  
 갈매기 자매 항구(반야월 작사/ 고훈산 작곡/ 최정자 노래)  
 비오는 목포 항구(김진경 작사/ 고훈산 작곡/ 비둘기 자매 노래)  
 물새우는 항구(반야월 작사/ 라윌파 작곡/ 비둘기 자매 노래)  
 갈매기 쌍쌍 (추미림 작사 / 이재호 작곡/ 백난아 노래),  
 잘 있거라 항구야 (천아도 작사 / 이재현 작곡 / 진방남 노래 )  
 항구의 선술집 (김방아 작사 / 박시훈 작곡 / 김정구 노래 )  
 항구의 청춘시 (김윤하 작사 / 박시훈 작곡 / 남인수 노래 )  
 동백꽃 피는 항구 (이희재 작사 / 박춘석 작곡 / 이미지 노래 )  
 팔도항구 ( 정두수 작사 / 박춘석 작곡 / 김부자 노래 )  
 연락선 ( 최홍기 작사 / 작곡 / 조미미 노래 )  
 부두 ( 정두수 작사 / 김준규 작곡 / 남진 노래 )  
 바닷가의 추억 (김희갑 작사 / 작곡 / 키보이스 노래)  
 인생의 배 (박건호 작사 / 이현섭 작곡 / 진필 노래)  
 대지의 항구 ( 남해림 작사 / 이재호 작곡 / 백년설 노래 )  
 항구의 사랑 ( 최지수 작사 / 김부해 작곡 / 윤일로 노래 )  
 항구의 무명초 ( 추미림 작사 / 연재근 작곡 / 장세정 노래 )  
 얼룩진 항구수첩 ( 손로원 작사 / 김화명 작곡 / 명국환 노래 )  
 항구마다 팔세드라 (추미림 작사 / 박시훈 작곡 /남인수 노래)  
 정든배는 떠난다 (김영광 작사 / 김호남 작곡/ 새생 트리오, 키보이스 노래)  
 무정한 배 (해양 작사 / 정진성 작곡/ 하춘화 노래)  
 부산갈매기 (김중순 작사 / 작곡/ 문성재 노래)  
 이별의 부산항 ( 김중순 작사 / 작곡/ 김수희 노래 )  
 바다 (강문수 작사 / 강인혁 작곡 / 강인엽 노래)  
 넘떠난 연안 부두 (김용현 작사 / 작곡 / 이춘근 노래 )  
 항구의 부르스(반야월 작사 / 김화영 작곡/ 현철 노래)  
 내 사람 항구(김병걸 작사 / 신철수 작곡 / 현철 노래)  
 여객선(최주호 작사 / 작곡 / 임종임 노래)  
 정든 부두(김중순 작사 / 한정선 작곡 / 임종임 노래)  
 찬란한 이 부두에 (김상범 작사/ 작곡/ 현숙 노래)  
 부두(진남성 작사 / 작곡 / 박우철 노래)  
 부두의 연가(고향 작사/ 남국인 작곡 / 조미미 노래)  
 '찾아온 부둣가'와 '부두에서'(방기남 작사/작곡 / 최유나 노래)  
 연안부두(조은파 작사 / 안치행 작곡 / 김트리오 노래)  
 무정한 그 사람(반야월 작사 / 송윤선 작곡 / 은방울자매 노래)  
 인천항 갈매기야(안치행 작사/ 작곡/ 주현미 노래)  
 뱃고동 (신성남 작사/ 작곡/ 서울시스터 노래)  
 내님 신고 가는배 (박일영 작사/ 김학송 작곡/ 조미미 노래)

등이 바다관련 대중들의 향수를 느끼게 하였고 386세대에 도전하기 위해 노래방 앨범속에 다수의 곡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특히 475세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바다관련 노래는 1989년에 발표된 '슬픈바다'(신재갑 작사/신재홍 작곡/조정현 노래)와 '다시 만날 때까지'가 신금을 울렸고 히트하였다.

### 다시 만날 때까지

(정귀운 작사 / 김다양 작곡 / 허범정 노래 )

1. 부산항 뒤에 두고 떠나가는 저 연락선 날두고 떠나가네  
 쌍고동 울리며 보내기 차마 싫은 마음 떠나기 싫은 마음  
 서로가 행복을 빌면서 안녕히 다시 만날 때까지
2. 배 떠난 부산항구 파도만 철썩이고 내 님을 신고 떠난 연락선  
 간 곳이 없네 보내고 남은 이 사랑도 떠나는 그 마음도

그 외 바다배경 노래는 국경의 부두(고운봉 노래), 사랑의 뚝단배(현혜미 노래), 청춘보트(김용만 노래), 푸른 파도 갈매기야(권은경 노래), 환상의 섬(윤수일 노래), 떠나가는 배(이여도, 정태춘 노래)를 위시하여

- 백갈매기(조동산 작사/ 원희명 작곡/ 이명주 노래)
- 바위섬(배창희 작사/작곡 / 김원중 노래)
- 파도(이인선 작사/김영중 작곡/배호 노래)
- 파도처럼(하수영 작사/작곡 / 윤정하 노래)
- 갈매기의 꿈(김정식 작사/작곡/노래)
- 안개섬(최성수 작사/ 작곡/ 노래)

등과 海, 船, 港, 島, 江, 島嶼, 沿岸, 江邊, 砂, 淚, 人生, 故鄉을 포함한 해양관련 가사는 약 3백여곡이나 되며 이러한 노래에는 작사, 작곡자가 틀리나 제목 앞뒤에 접두어를 붙인 것은 상당히 많다. 또한 일본 Fukae shima에서 서남쪽 33.5해리의 거리에 있고 제주도 동남쪽 89해리되는 지점에 전체면적 4평방마일도 안되는 男女群島(archipelago)에 얽힌 유행가 가사도 흥미를 돋군다.

이러한 노래들이 꽤 인기를 모았지만 그보다 앞서 바다관련 대중가요는 남진이 부른 ‘가슴 아프게’와 심수봉의 노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로 시트라우스(strauss) 원무곡인 ‘술과 여자의 노래’ 작품 제333번과 같은 맥락이다.

###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심수봉 작사 / 작곡 / 노래)

1. 언제나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 두 손 꼭잡았나  
 눈앞에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말을 해  
 뱃고동소리도 울리지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지으며 힘없이 돌아오네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아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그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양인자 작사/ 김부해 작곡/ 문주란 노래)노래와 같이 어쨌던 남자는 여자를 찾기 마련이고 배는 항구를 찾기 마련인 이 노래는 해운과 항만에서 부부의 관계와도 같다고 하겠다. 해운은 외적인 남편의 역할이고 항만은 내적인 아내의 역할이므로 해운은 남자로 항만은 여자로 표현되어 남자는 배(해운)이고 여자는 항구(항만)의 뜻과 같은 가사전달로 구성되었지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사 제목을 바꾸어 음미해 보면 파나마 운하나 코린트 운하는 인공호수에 배를 올려 배가 산으로 넘어가므로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뜻이며 역지에 가까운 것이다.

편의치적(FOC)국으로 전환시킨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 제클린 부인의 시투름운트드랑(stum und drang, 질풍과 노도)의 묘사와 같이 남자를 배로 여자를 항구로 한 노래 제목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찾을 수 있지만 이 노래를 힙합리듬에 거칠고 속된 가사대신 시를 대입시킨 랩과 시의 혼성장르를 일컫는 슬랩으로 묘사하면 바다관련 船首像(Figure head, 이물장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 배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선 물위에 떠 있는 모습이 생각나지만 이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배의 성능을 지배하는 수면아래의 모습이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이란 만체홀수선에서의 수면을 뜻하고 그 위의 모습을 타이프(type), 아래의 모습을 폼



(form)이라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배의 뜻을 가진 낱말은 Ship Vessel Boat, Craft, Carrier, Cruise, Clipper, Yacht, Barge, Marine Vechicles, Gig, Schooner, Corvette, Frigate, Wind Surfer, Board Sailing, Scull등 법규상으로 선박의 어휘로 사용되는 정의는 상법, 선박법, 해상충돌예방규칙등의 법률적인 해석이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람 또는 물건을 적재하여 항행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배의 항로, 화물, 속력 등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타입과 폼을 짜 맞추어서 능률 좋은 배는 황금 분할에 따라 누가보아도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모습과 피보나치 수열이나 프리에 급수인 기하학적으로 **어부어**인 여성의 몸매처럼 선도(LINES)가 선형설계로 구성된다.

상식적으로 배는 의인화 할 때 여성으로 취급되며 배라는 영어 ship(한글로 발음 vagina)의 어원은 square sail을 갖춘 3본마스트 이상 (Bonaventure mizzen mast)의 범선이므로 ship은 대형선을, Boat는 소형선을, Vessel은 대형과 소형선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보아 여성스러운 요소가 많다는 것과 같이 수면 위 모습인 타입(Type), 수면아래인 폼(Form)인 선박을 여러 유형의 여성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

화장(paint) 및 분(powder, 마력(power))에 돈을 써서 예쁘게 치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선박(페인트 작업)과 여성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몸매처럼 곡선이 많고 선박을 뒤에서 바라보면 여자의 허프가 연상(Transom stern 제외)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은 바다에서 왔다. 즉 어머니는 바다다. 그러므로 여성의 뱃속에서 아기가 먹는 양수의 맛은 바닷물 맛과 같은 것이다. 즉 클리토리스(Clitoris)에서 오바륨(Ovarium)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배는 살아있는 여성의 생명체로 생각하여야 한다. 다른 이유에서 찾아보면

- 여성주위는 남성들에 의해 둘러 싸여 요란스럽고 시끌벅적하다.
- 선박은 여자의 허리(Waist Deck : 중앙부 갑판선)와 코르셋 또는 기둥서방 (stay : 지주)을 갖고 있다.
- 남자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입수비(Initial Expense : 건조비)가 아니고 유지비(upkeep : 입시수리 ) 때문이다.
- 온몸에 장식 (Deckout : 갑판 청소)이 되어있다.
- 선박과 여자는 잘 다를 남자가 필요하다.
- 상반신 (Topside : 상부현측)은 노출되고 하반신 (Bottom : 선저수면하 )은 은폐하고 있다.
- 귀가 (Port : 입항)하면 항상 침상(Buoy : 부표)으로 돌진한다.

결국 선박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유지하는데 시간과 돈이 드는 번거로움이 따르며 항상 장식해 두어야 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은 옛부터 있었기 때문에 선박이 중·소형선박일 때 대개 여성으로 취급 되었다고 전해진다.

오늘날 선박설계는 운송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른 주요 항로상의 특징 때문에 유조선의 ULCC/VLCC, SUEZ-MAX, AFRA-MAX와 살물선의 VLBC, CAPE-SIZE, PANA-MAX, HANDY-MAX로 구분되기에 거대한 선박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큰 마력의 엔진과 프로펠러 매칭(Matching)관계는 대중가요 유행상 노래 여자야(이건우 작사/ 유행상 작곡/ 노래)와 같은 동일성이다.

조선공학측면에서 남성과 여성 관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프로펠러가 돌면 물속을 뚫고 전진하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선박의 뒤에서 이러한 전진력으로 선체에 작용시키며 이 미는 힘이 추력(Thrust) 또는 추진력 (Propulsion Force)이 되고 한바퀴 돌 때 앞으로 가는 거리를 피치(pitch)라고 하며 발걸음이 보폭과 같은 것이다.

빨리걸어려면 보폭도 커야 하지만 발을 더 자주 내 디더야 되듯이 피치를 크게하고 회전수

를 빠르게 하면 배의 속도가 빨라진다. 예로 프로펠라의 피치 850mm이고, 매분 회전수 360, 슬립(slip)을 20%로 하면 이 선박의 속력은  $0.85 \times 360 \times 60(1-0.2)/1852 \approx 8$ 노트이다. 항해속력 8노트라 하면 조선설계 종사자의 이야기 중에는 1968년 5월 21일 그 당시 대형선 천지호(5240톤급, 16명 희생) 침몰 사건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기억할 것이다. 소위 SSBC라 하여 5대 사고로 Sinking, Stranding and aground, Burning, Collision의 대형사고 발생이 통계적으로 8노트에서 많이 나타나 있고 이와 관련된 선박노양(撈揚)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형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날개(Blade)의 면적과 피치가 큰 프로펠러를 써야 하고 회전수를 빠르게 하여야 하고 따라서 큰 마력의 엔진을 놓아야 한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선주 입장에서는 돈 버는 재주(The midas touch)일 것이며 선원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서 온다(Make money or bring home the bucon)는 결과이므로 프로펠러 날개 익단(tip)이 선미침하(tipping) 상태로 배가 들어온다와 같이 결국 큰 돈을 벌어서 오거나 목돈을 가지므로(The ship comes in) 항구의 여자와 술을 마시며 술고래(tippler)가 되어 vulva에서 cock까지 가기 위한 신속한 보증상태이다.

이것의 어원이 팁(TIP)이며 여자들은 술집에서 신속하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골적인 표현 방법으로 To insure promptness(신속을 보증하기 위하여)라고 하여 그 머리 글자를 따서 팁이라고 하는 까닭에 팁의 기원으로 보아 날개 익단이 깃털로서 요즘 떡값속에 지도력은 power 인지 leadership 인지 구분지을 수 없는 비유의 관점과 떡값을 뇌물(bribe)에서 독소(toxin)를 약간 뺀 표현 같은 관례적인 입장에서 배를 남성으로 취급한 것 같다. 또한 커닝의 시 정기선은 귀부인이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군함은 남편이요 / 남편인 군함이 언제나 곁에 붙어 다닌다

남편인 군함이 언제나 호위를 한다. / 남편이 군함의 지시를 내린다.

또 다른 이유는 J조이스의 「예술가의 소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파도치는 바다가 보인다. 길고 검은 파도가 오리락 내리락 하면서 달없는 밤에 검게 보인다. 배가 돌아오는 부두끝에는 샛별같은 등불이 반짝거린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 항구로 들어가는 배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E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글에는

~~~노인은, 바다는 항상 여성이며, 큰 은혜를 내주거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바다가 사나워지거나 못된 짓을 할 때는 할 수 없어서 그러려니 했다.~~~

이 두글의 밑줄 친 부분을 음미해 보면 추상적으로 여자를 바다와 관련지어 항구 또는 항만으로 취급한 것 같다.

## 8. 마무리(Finish)

우리나라의 모든 대중가요 가사 속에는 울고 웃기는 작사자의 사연이 있기 마련이고 동시에 사람이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는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게 마련이다. 70년대 중반까지 히트한 마도로스 노래를 가끔 따라 부르면서 소설가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나뿐인 특별한 날'(출판사 문학동네, 1999년 판) 연애소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미혼'과 남자주인공 '규'의 끼있는 사랑의 추억과 함께 험한 삶의 현장에서 뿌리친 마도로스는 못되었지만 조선설계사라는 입장에서 선박각설이 타령노래를 흥얼거린다.

SP레코드판 - LP레코드판에 이어 CD음반에서 마도로스 노래가 사라진 가요계는 70년대 말 시작된 대학가요제에 이어 80년대 조용필 시대에 '돌아와요 부산항'을 히트시키며 슈퍼스타 자리를 굳혀 오빠부대를 만들어낸 가수도 있고 이후 발라드곡이 인기를 끌면서 90년대 까지 통련하고 있지만 해방등이 세대 정서에는 맞지 않다.

90년대 단연 서태지로 92년 '난 알아요'로 나타난 댄스그룹에서 엄정화의 '페스티벌', 조성모의 '슬픈 영혼식', Y2K의 '해어진 후'까지 대중문화에 가요의 새 천년을 예고하고 있기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연히 마도로스 관련 노래는 사라지면서 청중을 잃기 마련이다. 그러나 어쨌든 564세대(50대, 60년대 학번, 40년대 출생)는 마도로스 노래에 향수가 살아 있는 것 만은 사실이고 단란 주점 같은 데서 마이크를 한 번 쥐면 절대 놓지 않는 가요는 마도로스 노래다.

오늘날 인터넷 인구 확산의 최대 유공자(?)가 오양의 비디오라면 바다사나이에 관한 소설 지그 프리트 렌쯔(Siegfried Lenz)의 등대섬과 솔헤이어달(Thor Hererah)의 콘티키는 해양 인구 확산의 최대 모험 소설일 것이다. 그리고 정보는 바다란 뜻과 같이 마도로스 교육도 중요하지만 바다관련 해커의 교육도 시켜 21세기 해양마케팅을 준비해야한다.

끝으로 태평양 먼 바다에 고향을 묻고 있는 이나라의 해양선각자들을 위해 순직 위령탑(79년 4월 12일 전국선원노동조합에서 건립)에 바친 노산(鷲山)의 시를 감상하면서 흘러간 대중가요 속의 마도로스에 관한 추억을 되새겨 본다.

바라 보라 저 오륙도 벗어나면  
 세계로 통하는 한바다  
 내저레 이익을 위해 내나라 이름을 위해  
 배위에서 몸을 싣고 오대양으로 산같은 파도를 헤쳐간 이들  
 조상때부터의 이상기에 이나라 사나이들의 기질에  
 오늘도 여기 귀기울이면 그대 원혼들의 애끓는 호소  
 이 바다 기슭을 치며 부딪는 파도소리가 들려나온다.  
 여기는 이나라 해양개척의 전망대  
 그대 외로운 뱃들이 여기 깃들어  
 동포들 바치는 사랑의 꽃다발에 외로이 미소짓고  
 오늘도 내일도 해양한국의 큰 사명띠고 나가는  
 의욕의 젊은동지를 위해  
 풍랑멈추는 바다의 수호신이 되어  
 거칠고 아득한 바다  
 길을 이끄는 향도자가 되어주소서

## 참고문헌

- 1) 암흑의 시대 제5편 '한국현대사', 청구문화사, 1980
- 2) 노래방 대백과 및 골든 히트 앨범집, 성음미디어, 1994
- 3) 흘러간 가요집, 세광출판사, 1993
- 4) 박명규 저, '도설 선박공학', 해문출판사, 1989
- 5) 필자소유 레코드판, 카테레이지 테이프에서 발췌
- 6) 박명규 외 3인, '조선실무 영어 독본', 효성출판사, 1999
- 7) 김재근 저 '속 한국선박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 8) 이기백 저, '한국사 신론', 일조각, 1980
- 9) 고등학교 국사(하), 국사편찬 위원회, 1992
- 10) 上野喜一良, '船의 歷史', '船의 知識', 해문당, 천연사

## 후기

이제 우리도 빨리 해양관련 산업확보를 위한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야 하며 한국인들의 바다관련 해양에 흥미를 주기위한 방법에 힘을 기울여 지금부터 다양한 광고매체를 개발하고 해양관련 고유브랜드명을 가지고 바다를 홍보하고 동원하는 등 해양마케팅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해운(업)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수산(업)에 관한 바다관련 노래도 이어질 것이다.